



▲ 선원 세계예술단의 영국 순회공연이 12개 도시 총 52회 공연을 끝으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여러 시장이 선원 공연을 관람하고 뛰어난 예술적 수준과 깊은 문화적 내포를 극찬했다. 3월 25일 저녁, 셰릴 필포트 스완지 시장 겸 시의원이 남편과 함께 공연을 관람한 후 선원 예술가 대표에게 직접 서명한 감사패를 증정했다.

■ 박해당해 사망한 파룬궁 수련생 중에 이름이 확인된 인원수: 5334명

■ 2004년 12월 3일부터 탈당(단/대)한 인원수: 4억 5981만 9071명

■ 인터넷 봉쇄를 돌파해 明慧網을 보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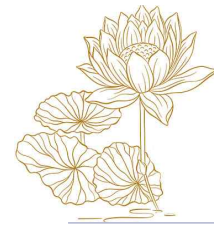
프리게이트(自由門) PC판: <https://j.mp/fgp88>

프리게이트 안드로이드VPN: <https://j.mp/fgv88>

울트라서프 안드로이드: <https://s3.amazonaws.com/693/um.apk>

울트라서프(無界) PC판: <https://s3.amazonaws.com/693/u.exe>

明慧網은 1999년 6월에 설립했고, 가장 먼저 파룬궁 진상 정보를 수집·정리·발표하며, 중국의 박해 환경에서 대법제자의 수련환경을 지켜주고 보완해준다.



明慧週刊

李洪志 甲申年十二月二十七日

第1284期(2026.04.03) WWW.MINGHUI.ORG

한글판 1048호 minghui.or.kr



▲ 3월 21일 토요일, 뉴질랜드 파룬궁수련자들은 오클랜드 시내 커머셜 베이 광장에서 행사를 열고 시민들에게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를 소개했다.

주요 내용

【수련교류】 왜 아직도 이런 교란이 나타나는가?

【수련교류】 수련 종결에 대한 인식을 다시 말하다

【수련교류】 타인을 위하는 출발점에서 집착을 닦아내다

【시사평론】 공안 가족의 이민 실패, 누구에게 경종을 울리는가?

〈목차〉

■ 해외종합

해외 수련생들의 정법 수련 행사 보도 3

■ 중국소식

중국 수련생이 최근에 당한 박해사례 선별 보도 12

■ 수련교류

왜 아직도 이런 교란이 나타나는가? 15

‘5·13’ 원고를 쓰며 느낀 점 17

수련 종결에 대한 인식을 다시 말하다 18

절대로 AI에 경문을 올리지 말라 22

수련인은 공덕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어서 안 된다 24

타인을 위하는 출발점에서 집착을 닦아내다 31

수련 속에서 대법의 위대함을 목격하다 42

법을 스승으로 삼아야 난법자가 숨을 곳이 없다 46

■ 시사평론

공안 가족의 이민 실패, 누구에게 경종을 울리는가? 55

【편집자 주】 明慧周刊은 지면 제한으로 明慧網의 내용 중 일부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발췌문입니다. 본문은 글쓴이 개인의 현재 인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므로, 수련생들이 서로 교류하고 ‘比學比修’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베이성 공안분국 부국장의 아내가 캐나다 이민을 거부당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각국 정부의 이민 부서를 포함한 국제사회는 고문죄와 반인륜 범죄를 포함해 중공이 파룬따파를 박해하며 저지른 심각한 인권 유린 범죄를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 ‘남이 모르게 하려면 자신이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있다. 어떤 사람, 어떤 기관, 어떤 부서가 파룬따파 박해에 가담했든 조만간 모두 폭로될 것이다.

사실 이민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모두 자신과 가족의 미래에 책임을 져야 한다. 파룬궁수련자가 시민들이 진상을 알도록 돕고 중공의 조직에서 삼퇴(중국공산당의 3가지 조직 탈퇴)하도록 돕는 것은, 모두가 중공의 파룬따파 박해의 희생양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때문이다.

참고문헌:

[1] 명혜망 통신원, ‘스자좡시 위화 공안분국의 파룬궁수련자 박해’ 명혜망 2014년 9월 22일.

게 시신을 확인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파룬따파 박해를 전담하는 위화 공안분국 부국장 리진(李軍)은 진상을 필사적으로 은폐하며, 공안 경찰의 불법 수색과 포위로 인해 자오원위가 추락해 사망했다는 사실에서 책임을 회피하려 망동했다. 이 글은 위화 공안분국과 리진을 자오원위 사망의 직접적인 책임 기관과 책임자로 지목했다. 불법 체포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파룬궁수련자 류리훤은 나중에 불법으로 5년형을 선고 받았고, 리진은 직접적인 책임자로 지목됐다.

글은 또 위화 공안분국 부국장 리진이 파룬궁수련자 왕화전(王華君)과 그녀의 어머니 푸(付) 씨를 불법 강제노동 처분했으나, 신체검사에서 불합격해 노동수용소가 수감을 거부하자 그제야 시설 밖 집행을 처리했다고 폭로했다. 왕화전은 2008년 박해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명혜망에는 스자좡시 차오둥 공안분국과 위화 공안분국 경찰이 현지 파룬궁수련자를 납치하고 박해한 다수의 보도가 더 있다.

맺음말

1999년 7월 중국공산당(중공)이 파룬따파를 박해하기 시작한 이래, 명혜망은 대량의 구체적인 박해 사례를 기록해 왔다. 이는 중국 대법제자들이 엄청난 위협을 무릅쓰고 자신들이 받은 박해의 1차 자료를 명혜망에 전달한 것이다. 수많은 평범한 수련자들의 생명과 심혈이 응집된 이러한 원본 기록과 정리돼 출판된 서적, 예를 들어 ‘명혜망 25주년 인권 보고서’ 등은 이미 자유세계의 많은 국가가 이민 자료를 심사하고 인권 유린 악당을 제재하는 근거와 출처가 됐다.

해 외 종합

해외 수련생들의 정법 수련 행사 보도

선원(神韻)의 동일 규모 8개 예술단이 북미, 유럽, 호주에서 열연을 이어갔다. 2026년 3월 셋째 주 미국, 캐나다,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호주 등 국가의 13개 도시 관객들이 32회의 훌륭한 공연을 관람하는 행운을 얻었다. 호주 연방 상원의원 바베트는 찬탄했다. “정말 훌륭한 공연입니다. 고난도 무용 기교가 놀랍습니다. 중국 문화에 대해 전혀 모르더라도, 예를 들어 저도 많이 알지 못하고 조금 아는 정도지만 그래도 마음껏 무용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 속의 예술적 아름다움을 깨달을 수 있는데 이견 저한테 오늘 밤 가장 멋진 경험 중 하나입니다.” 그는 선원 무대에서 펼쳐진 파룬궁수련자의 이야기에 대해 “매우 매우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라고 말했다. “파룬궁의 이야기를 이해한다면 그들이 널리 알리는 건 자비이고 명상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현재 중공의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지극히 잔혹하다고 생각하고 박해가 중단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더 많은 사람을 각성시킬수록 (박해 중단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바베트 상원의원은 선원이 겪은 폭탄 위협과 초국가적 탄압을 강력히 규탄하며 모든 시민에게 선원을 관람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선원에 대한 위협은) 저를 격분하게 했고 역겹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 말은 우리가 호주에 살고 있고 이곳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서는 자신이 하고 싶은 어떤 일이든 실천할 수 있고 보고 싶은 어떤 공연이든 관람할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중국인, 화교, 그리고 호주 시민들이 절대적으로 선원

공연을 관람하러 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공연이고 저는 강력히 추천합니다.”

3월 17일부터 3월 19일까지 미국 선원글로벌예술단이 스페인 북부 부르고스에서 펼친 3회 공연은 매회 만석을 이뤘다. 3월 19일 오전 부르고스 주의회 의원은 선원 예술가들을 고풍스러운 주의회 사무 빌딩으로 초빙해 선원예술단에 표창장을 전달했다. 표창장에는 선원 공연이 “품격, 정통과 예술의 모범입니다”라며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이 시대에 선원이 예술, 인간성, 신성 사이의 역사적 유대를 되찾기 위해 확고부동하게 노력하고 있고 이는 우리의 도덕적 지침이 되었습니다”라고 극찬했다. 스페인 국회 의원 에르난도는 “공연에서 중국의 그 신앙 단체(파룬궁수련자)가 겪는 일을 보여주었는데 그들이 박해를 받으면서도 끈기있게 나아가는 것을 알게 돼 각별히 감동했고 또한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라고 찬탄했다.

3월 16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리는 두 번째 선원 공연을 하루 앞두고 주최 측은 중공의 협박 편지를 받은 직후 경찰에 신고했다. 당일 공연은 순조롭게 진행됐고 전 좌석이 매진됐다. 이탈리아 전 외무장관이자 상원의원인 줄리오 테르치는 선원에 보내는 지지 서한을 공개적으로 발표했다. 그는 서한에서 선원이 공산주의 이전의 전통문화를 보여준다는 이유로 베이징 당국에 의해 공연이 금지됐다고 밝히며, 점차 증가하는 이러한 이메일 협박이 “깊은 우려를 자아냅니다”라고 전했다. 한 달 전 로마에서 선원 공연을 관람한 테르치 의원은 “저는 모든 예술가, 모든 참여자, 이를 위해 노력해 주신 모든 분, 나아가 중국에서 이러한 작품을 선보일 수 없어 고통받는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

편이 온갖 심혈을 기울여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이민관과 판사를 설득하지 못했다. 캐나다로 이민하려던 리리의 꿈은 결국 산산조각이 났다.

해당 이민 사례와 관련된 박해 사실 및 살인 사건

리리가 캐나다 이민국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그녀의 남편은 허베이성 스자좡시 차오둥 공안분국 형사경찰대장, 위화 공안분국 부국장을 지냈다. 명혜망 자료에 따르면 허베이는 파룬따파를 가장 심각하게 박해하는 지역 중 하나로, 스자좡시 차오둥 공안분국과 위화 공안분국 모두 파룬궁수련자를 심각하게 박해하는 범죄에 가담했으며 살인 사건과도 연관돼 있다.

2014년 9월 22일 명혜망에 발표된 ‘스자좡시 위화 공안분국의 파룬궁수련자 박해’[1]라는 글에 대한 명혜망 통계에 따르면, 허베이성 스자좡시 위화구 정법위(정치법률위원회) 및 공검법(공안·검찰·법원)이 파룬궁수련자 박해에 가담한 사례는 73건이며, 그중 1명이 박해로 사망했고, 9명이 불법 판결을 받고 감옥에 수감됐으며, 24명이 불법 강제노동을 당했고, 24명이 세뇌반으로 보내져 박해받았으며, 25명이 납치되고 불법 가택수색을 당했고, 더 많은 파룬궁수련자가 괴롭힘을 당했다.

이 글에 따르면, 2004년 2월 3일 스자좡시 위화 공안분국 경찰이 파룬궁수련자 자오원위(趙文瑜)와 류리첸(劉立群)을 불법 체포하려 하자, 두 사람은 어쩔 수 없이 6층 발코니 창문에서 빗물관을 타고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갔다. 류리첸은 3층까지 내려왔을 때 추락해 허리뼈가 부러졌고, 자오원위는 5층까지 내려왔을 때 불행히도 추락해 사망했다.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 20여 일이 지나서야 스자좡 위화 공안분국과 위창 파출소는 유가족에

0명을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관할 구역 내 사건의 조사, 심문, 구류 업무를 담당했으며, 자신은 결코 용의자를 학대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리리 남편의 해명은 그가 인권 침해 범죄에 가담했을지도 모른다는 이민관의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했다.

2024년 7월 10일, 캐나다 이민부는 리리에게 보낸 서한에서 리리의 남편이 공안국에서 30년에 달하는 직업 생애 동안 반인륜 범죄에 가담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서한은 여러 보고서를 인용해 허베이성 공안 시스템을 포함해 중국에서 고문과 인권 침해 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 서한은 리리 남편의 역할과 직책으로 볼 때 그가 심문 과정에서 동료와 부하 직원의 인권 침해 행위를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민관은 리리의 남편을 구체적인 고문 사건과 연결지을 만한 정보는 없지만, 허베이성을 포함한 중국 형사 사법 시스템이 심문 과정에서 조직적인 인권 침해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을 폭로하는 대량의 출판물이 존재하므로, 리리의 남편이 적어도 이러한 행위의 공범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2024년 9월, 이민관은 그녀의 남편이 입국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을 근거로 리리의 영주권 신청을 거부했다.

리리는 이민관의 결정에 불복해 연방 법원에 사법 심사를 청구했다. 연방 판사는 이민관이 공안국에 조직적인 고문 정책이 존재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즉 ‘허베이성 공안국이 심문과 구류 과정에서 고문을 가하는 정책을 갖고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리리와 그녀의 남

리는 (선원이 중국에서 공연하는) 그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라며, 중국이 다시 자유를 되찾기를 기원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선원이 구현하는 가치관이 “유럽 조약과 유럽 역사 전체에 나타나 있듯이 유럽 국가와 유럽인의 가치 기반이기도 합니다”라고 평가했다.

3월 24일 저녁, 선원예술단 창립 20주년을 맞아 3월 25일 뉴욕 링컨센터로 돌아와 18회 공연을 펼치는 시점에, 영문 NTD TV는 대형 다큐멘터리 ‘언브로큰: 선원, 꺾이지 않는 용기의 무대(UNBROKEN: The Untold Story of Shen Yun)’를 출시하고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성대한 레드카펫 프리미어 상영식을 개최했다. 1년에 걸쳐 제작된 이 영상은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세계 정상급 중국 고전무용 예술단인 선원의 무대 뒤 이야기를 전 세계에 보여준다. 프리미어 상영식은 뉴욕 링컨스퀘어 AMC 극장(AMC Lincoln Square 13)에서 열렸으며, 다큐멘터리 제작진과 선원예술단 일부 예술가, 그리고 시의원, 예술계 인사를 포함한 각계 귀빈 1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 다큐멘터리는 온라인에서도 전 세계 동시 상영됐다. 영화는 브라우디 가족의 두 젊은 선원 단원이 역경에 직면했을 때 부모와 서로 지지하며 난관을 헤쳐나가는 과정을 묘사해 많은 관객의 심금을 울렸다. 제작진 중 한 명이자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정보센터 소장이기도 한 브라우디는 26년 동안 서방 사회에서 중공이 파룬궁에 가하는 잔혹한 박해를 폭로해 왔다. 브라우디는 자신이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며 “저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항상 매우 명확히 알고 있었고, 이 점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스스로 끈기를 갖고 맑은 정신을 유지하며, 자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음을 알고 계속 전진하는 것뿐입니다”라고 말했다. 브라우디는 또한 두 형제가 선원에 합류한 후 일어난 여러 긍정적인 변화도 공유했다. “그들은 더욱 책임감 있어졌고 매사에 더 진지하고 책임감 있게 임하며, 신체적·정신적으로 매우 강인해져 예전에 집에 있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3월 22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성대한 성 패트릭 퍼레이드가 열렸다. 파룬궁수련자들로 구성된 천국악단이 모습을 드러내 환영 받았다. 한 관객은 파룬따파 퍼레이드 행렬이 ‘진선인(眞善忍-진실·선량·인내)’ 메시지를 보여줬다며 “모든 사람에게 하나의 격려가 됩니다”라고 말했다. 퍼레이드 당일 눈보라가 쳤지만 사람들의 열정은 식지 않았다. 92개의 꽃차, 악단, 단체가 도심의 생마티외 교차로에서 메종뇌브 거리를 따라 동쪽으로 행진했다. 2km가 넘는 퍼레이드 경로에서 관객들은 뜨거운 반응을 보였으며, 천국악단이 지나갈 때 군중 속에서 때때로 “파룬따파”를 외치는 소리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딜런은 말했다. “정말 좋아합니다. 저는 이 음악을 사랑합니다. 저는 이 에너지가 좋고 정말 멋집니다.” ‘세계는 진선인이 필요하다’는 현수막을 보자 그는 감탄을 금치 못했다. “와, 이것은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는 파룬따파 진상 전단을 기꺼이 받으며 말했다. “맞습니다. 이 세계는 정말 인내가 필요하고, 경청해야 하며,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서로 간의 선의가 필요합니다.”

3월 28일,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일부 파룬궁수련자들이 보훔 중심가에서 파룬궁을 소개하는 ‘정보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파룬궁수련자들은 연공 음악에 맞춰 공법을 시연하는 것 외

시사평론

공안 가족의 이민 실패, 누구에게 경종을 울리는가?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캐나다 연방 법원의 2026년 3월 중순 판례에 따르면, 한 중국 국적 여성의 캐나다 이민 신청이 거부됐는데, 그 이유는 그녀의 남편이 중국 본토 공안분국의 부국장이기 때문이다. 이 소식은 많은 시민, 특히 해외 거주 중국인들의 관심을 끌었다. 명혜망 기록에 따르면 이 여성의 남편이 소속된 기관과 부서는 모두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에 대한 심각한 박해에 가담했다.

이민 거부 과정과 이유

에포크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이 여성의 이름은 리리(李麗, 음역)다. 2016년 8월, 리리는 남편과 자녀를 동반 가족으로 해 캐나다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민관은 신청서를 심사하던 중 리리의 남편이 중국 공안 시스템에서 다년간 재직한 사실을 발견했고, 이에 2020년 캐나다 이민부는 리리에게 남편의 공안국 근무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여러 차례 발송했다.

리리의 남편은 답변에서 자신이 허베이성 공안국에서 30년 넘게 근무했다고 밝혔다. 1993년 7월부터 2013년 8월까지 그는 허베이성 스자좡시 공안국 차오둥 분국 형사경찰대대 대장을 지냈다. 2013년부터는 허베이성 스자좡시 공안국 위화 분국 부국장으로 승진했으며, 현재 직급은 1급 경감이다. 또한 그는 120~15

뒤에 있는 층층의 불도신(佛道神)들이 내포를 일깨워주실 것이다. 혹은 착실하게 법을 외울 때 집착심이 갈수록 열리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는 법을 외우는 수련자들이 보편적으로 가지는 체득이다.

당신이 판관으로 만들어 ‘지름길’을 가려 할 때, 그 과정에는 이미 다른 사악한 생명이 당신에게 준 것들이 섞여 들어갔다! 하물며 법 외우기 자체가 목적이 아니며 공공연히 대법의 수련 형식을 개변하는 것은 더욱이 난법이다.

왕청우의 이런 상황은 명백히 다른 공간 구세력의 난신(亂神)에게 조종당하는 것이다. 자신을 망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수련자들까지 샷된 길로 이끌고 있으니 이 얼마나 큰 죄악인가? 누가 이를 따르며 자신을 망치려 하는가, 그것은 악한 자를 도와 나쁜 짓을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 글에서 왕청우의 일부 행위를 폭로하는 것은 개인 공격을 하려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고립시키려는 것도 아니다. 주로 대법을 수호한다는 원칙에 입각해, 푸신시에서 정법을 교란하고 수련자가 사부님께서 안배하신 길을 걷지 못하게 방해하는 다른 공간의 난신과 사악한 요소를 제거하기 위함이다.

좋은 약은 입에 쓰나 병에 이롭고, 충직한 조언은 귀에 거슬리나 행동에 이롭다. 이 글이 현지의 모든 수련자에게 중시돼 많은 법공부와 법에서의 교류를 통해 난법 요소를 제거하고, 각자 자신을 바로잡아 사부님께서 우리에게 안배해주신 수련의 길을 바로게 걸어 사부님을 따라 원만해서 집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한다.

에도 전단지 배포와 설명을 통해 파룬궁의 아름다움을 전하고 중국공산당(중공)의 잔혹한 파룬궁 박해를 폭로했다. 미겔 (Miguel) 이라는 남성은 진선인 원칙에 완전히 공감한다고 밝히며 동시에 이것들이 사회에서 날로 사라지고 있다고 탄식했다. “이러한 원칙을 견지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이러한 원칙을 짓밟는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미겔은 파룬궁수련자들이 개최한 활동을 거듭 칭찬했다. “저는 여러분이 이곳에서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압박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만약 아무도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누군가 나서서 이 일을 하는 것이 매우 좋다고 생각하며 이 점을 매우 존중하기에 즉시 청원서에 서명했습니다. 어쩌면 누군가는 여러분이 하는 일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느낄지도 모르지만 저는 이곳에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하는 모든 사람이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3월 21일, 아일랜드 파룬궁수련자들이 더블린 시내 중심에서 조용히 연공하고 있을 때, 발트해 국가에서 온 관광객 안제이(Andrzej)는 한참을 지켜본 뒤 이같이 감탄했다. “그들에게서는 매우 긍정적인 에너지가 뿜어져 나옵니다. 강렬한 에너지가 모이는 것이 느껴지며 온몸이 마치 두터운 에너지장에 둘러싸인 것 같습니다.” 프랑스인 마리 베아트리스(Marie-Beatrice)는 아일랜드에 정착한 지 수년이 됐다. 그녀는 예전부터 파룬궁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며, 공법이 가르치는 ‘진선인’도 자신에게 매우 친숙하게 느껴진다고 밝혔다. “사실 이것은 제가 스스로 따르는 준칙이기도 합니다.”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그녀는 중의학을 매우 좋아하며 중국 전통문화와 의학은 수준이 깊다고 했다. 그녀는 파룬궁

을 소개하는 전단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중국입니다.”

헝크시는 벨기에의 공업 도시다. 3월 22일, 파룬궁수련자들은 헝크시에서 열린 ‘춘계 정신 만발 박람회’에 참가했다. 수련자들은 전시장에서 빔프로젝터를 사용해 방문객들에게 파룬궁과 중공의 잔혹한 파룬궁 박해를 소개했다. 올해 57세인 안토넬라는 최근 몇 년 사이 파룬궁을 접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집에서 연공을 하고 관련 서적도 읽고 있다. 그녀는 이 시간이 자신의 생활 리듬을 늦춰주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오늘 박람회에서 전법륜을 살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고 전했다. 안토넬라는 처음에 흥미로 파룬궁을 배우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매일 파룬궁을 연공하면서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연공 후 수면이 개선됐고 스트레스도 줄었다고 한다. 그녀는 “진선인 원칙은 일상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문제를 처리할 때 진선인을 떠올리며 자신을 일깨우면 머리가 더 평온해집니다. 가족들도 제가 예전보다 온화해졌다는 것을 느낍니다”라고 말했다.

3월 7일부터 15일까지, 싱가포르 파룬따파 불학회(佛學會)는 분기별로 열리는 9일간의 파룬궁 공법교습반(이하 ‘9일 학습반’)을 개최했다. 9일 학습반의 내용은 파룬따파 창시자 리홍쯔(李洪志) 사부님의 설법 영상을 상영하고, 자원봉사자들이 수강생들에게 파룬궁의 5가지 공법을 무료로 가르치는 것이었다. 이번 9일 학습반에는 직장인도 있었고, 가족과 지인이 장기간 수련하는 것을 보고 이름을 듣고 찾아온 인연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싱가포르에 와서 9일 학습반에 참가하게 돼 그들은 더욱 각별하고 소중하게 느꼈다.

었던 굽은 길이다. 왜 남들이 이미 빠졌던 구덩이에 다시 빠지려 하는가? 빠지기는 쉽지만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당신의 결말은 어떠하겠는가?

구함이 없어야 스스로 얻는다는 것에 대해 모두 기억하는가? 사부님께서 《북미 제1기 법회 설법》에서 “유의적으로 무엇을 깨달으려고 생각하면 보증하고 깨닫지 못한다. 당신은 이 책을 들고 오로지 보기만 하라. 구함이 없으므로 스스로 얻게 된다고 함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사부님께서 《미국동부법회 설법》에서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그 집착심을, 비록 조금 남았다고 할지라도 남기지 말고 모두 제거해 버릴 것을 희망한다. 구하고자 하는 것이 없어야 저절로 얻게 마련이다. 당신들이 갖고자 하면 그것은 집착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사부님께서 《2003년 정월대보름설법》에서 “당신들은 아는가? 마음속으로 원만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원만에 이르지 못한다. 더군다나 원만에 이르고 싶어 하면서 아직도 정(情), 재물(財) 등에 집착하는 사람은 더욱 원만에 이를 수 없다. 구하고자 함이 없어야만 자연히 얻는다! 대법제자들이 오늘날 한 일체는 바로 역사가 당신들에게 부여한 책임으로서 당신은 당당하게 당신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잘하도록 하라. 무엇이든 모두 그 속에 있다”라고 말씀하셨다.

글자를 분해해 법공부를 한다는 것이 법으로 자신을 지도하고 법공부로 마음을 닦는 목적에 도달할 수 있겠는가? 수련은 착실하게 닦는 것이다. 당신이 법공부를 하고 법을 외우는 과정에서 사부님께서 당신의 집착심을 일깨워주시고, 법의 글자 하나하나

더 많은 사례가 있으나 일일이 상술하지 않겠다. 진정으로 수련하고자 한다면 법에 대조해 볼 때 일목요연하다. 착실하게 수련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사오자, 배경이 불분명한 자, 난법자, 자심생마한 자들이 부리는 온갖 수작에 빠져 번번이 함정에 떨어질 것이다.

왕청우 난법 사건이 장기간 지속되고 파급 범위가 넓은 이유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이 있다.

1) 구세력의 사악한 배치

2) 추종자들에게 보편적으로 법이 아닌 사람을 배우고, 법이 아닌 사람을 보는 마음이 존재하기에 숭배 심리가 생기고 높은 층차와 지름길을 추구하며 수련의 고통을 겪으려 하지 않고 밖으로 추구한다. 우리 지역에 이런 사람들이 있기에 구세력은 왕청우 같은 사람을 우리 사이에 나타나게 한 것이다.

3) 정체적으로 정념이 부족하고 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법으로 자신을 대조하지 않는 문제가 존재해, 사도(邪道)를 걷는 사람들에게 장기간 시장을 제공했다.

모두 생각해보라. 불로소득을 원하고 고생하기 싫어하며 지름길만 찾는 마음을 버리지 못한다면, 사회에서 교활하고 기회주의적인 사람들과 본질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이것이 대법에서 가르쳐주신 “구함이 없어야 스스로 얻는다(無求而自得)”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삼장법사(당승)도 평범한 인간의 육신과 눈을 가졌기에 불경을 구하러 가는 길 초기에 요괴를 동정하고 손오공의 선의의 권고를 듣지 않아 여러 번 요괴의 함정에 빠졌다. 지름길을 구하고 기이한 것을 내세우는 것은 예전에 많은 사람이 걸

3월 29일 일요일, 뉴질랜드 파룬궁수련자들이 오클랜드에서 열린 문화 축제에 참가했다. 파룬궁수련자들은 현장에 부스를 마련해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파룬따파를 소개하고 다섯 가지 공법을 시연했다. 평화롭고 완만한 연공 시연은 많은 사람의 발길을 멈추게 했으며, 많은 관람객이 그 자리에서 공법을 배웠다. 수련자들은 또한 요고(腰鼓), 용춤, 무용, 고쟁 연주를 선보여 현장에 평화롭고 즐거운 분위기를 더했다. 병원 수술실에서 일하는 미리암네스(Miriam Ness)는 파룬궁 공법을 체험한 후 소감을 나누었다. “느낌이 매우 좋았고 몸이 아주 가벼워졌으며, 동시에 체내에서 솟아오르는 열기를 느꼈습니다.” 오클랜드에서 오랫동안 생활해 온 문화 고문 헬렌은 인터뷰에서 즐곧 파룬따파 단체를 지지해 왔다고 밝혔다. 그녀는 “여러분이 겪은 일들 때문에 여러분을 지지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파룬궁수련자들이 계속해서 사회에 진상을 알릴 것을 격려했다. “어떤 방식을 쓰든 더 많은 사람이 중국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은 선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3월 22일, 호주 멜버른 동남부 클레이턴(Clayton)에서 연례 커뮤니티 축제(Clayton Festival)가 열렸다. 축제에 마련된 파룬궁 부스는 여러 민족 시민들의 발길을 사로잡았고, 이들은 파룬궁 수련자와 대화하며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았다. 이슬라 앨런은 현지의 한 유치원 교사로, 그녀는 진선인 이념에 공감을 표하며 대법 수련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고 말했다. “우리가 평소 아이들에게 진선인 이념을 많이 가르친다면, 이러한 보편적 가치는 분명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좋은 기초를 다져줄 것입니다.” 그녀는 즉시 수련자를 자신이 일하는 유치원에 초청해 파룬따파 공법

교육 과정을 개설해 달라고 요청했다.

파룬궁수련자들이 3월 21일 오후 서호주 스완시 비치보로 지역에서 열린 제15회 ‘알톤 컴스 얼라이브’ 축제에 참가해 사람들에게 파룬따파의 아름다움을 전했다. 사람들은 진선인 원리에 찬사를 보냈고 일부는 파룬궁을 배우고 싶다고 밝혔다. 아프순 카니는 파룬궁 수련에 큰 관심을 보였다. “저는 파룬궁이 정말 좋습니다. 오늘날 사회의 사람들에게는 긴장을 풀고 우울증과 끔찍한 일들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런 연공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파룬궁을 연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30분이나 1시간 정도 시간을 내어 자신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세계 각지에서 다큐멘터리 ‘국유장기(State Organs)’가 잇따라 상영된 데 이어 3월 15일 서호주 올버니(Albany) 시청에서 상영됐다. 현지 시의원이 상영 후 좌담회에 참석했으며 관람 후 글을 발표해 중공의 사악한 본질을 폭로했다. 많은 관객이 다큐멘터리를 관람한 소감을 발표했다. 한 남성이 마이크를 들고 말했다. “이런 영화를 보니 정말 충격적입니다. 중공은 ‘사악하다’고 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파룬궁에 저지른 모든 짓은 다 사악합니다.” ‘국유장기’는 20년 전 중공의 파룬따파 박해 속에서 두 젊은이가 의문 실종되고 그들의 가족이 힘겨운 가족 찾기 여정을 시작한 이야기를 담았다. 영화는 방대한 1차 증언과 독점 인터뷰를 통해 중공이 파룬궁 신앙 단체를 상대로 저지른 대규모 생체 장기적출의 악랄한 만행을 보여준다. ‘국유장기’ 상영회는 서호주 기업가 마크 허치슨(Mark Hutchison)이 주최했으며, 올버니 시의원 토마스 브로프(Dr Thomas Brough)가 초청 사회자로 참

르친다. 한 수련자가 사악에게 소위 ‘수감 통지’를 받고 왕청우에게 어떡하냐고 묻자 왕청우는 그녀에게 “공기둥을 보세요”라고 답했다. 연공할 때 마음이 가라앉지 않는다는 수련자에게도 왕청우는 “공기둥을 보세요”라고 가르쳤다. 안 보이면 어떻게 하냐고 묻자, 억지로라도 보면 마음이 고요해질 수 있다고 했다. 구세력의 박해를 ‘공기둥 보기’를 통해 타파한다니, 이것이 법에서 나온 것인가?

사부님께서 말씀하신 법에 따라 안으로 찾아 자신을 제고하지 않고, 어떤 방법을 써서 지름길을 가려 한다면 당신이 좋아하는 마도(魔道)의 사술(邪術)과 나쁜 것들이 당신을 통제해 수련을 망치게 할 것이다. 수련은 이렇게 엄숙한 것이다.

5. ‘발정념’ 개념을 도용해 단판으로 만들

사존께서는 특별히 경문을 쓰시어 대법제자에게 발정념의 구결과 요령을 알려주셨다. 그러나 왕청우는 단판으로 만들어 추종자들에게 한 세트의 설법을 가르치고 일이 생기면 자신의 요구대로 발하게 했다.

수련자가 시련 중에 있을 때 왕청우는 그 수련자에게 발정념을 못 하게 했다(시련 중인 수련자 본인이 자신에게 발정념 하는 것도, 다른 수련자들이 발해주는 것도 금지함). 그는 소위 “선악이 함께 나온다”, “일념에서 선악이 나온다”라며 선한 것이 오면 악한 것도 오는데 발정념을 받는 사람이 견딜 수 있겠느냐는 등 대법을 단장취의(斷章取義)하고 마음대로 왜곡해 해석했다. 눈이 밝은 사람이라면 이는 전형적인 대중을 미혹시키는 난법임을 즉시 알아볼 수 있다.

듣건대 한번은 이 일에 대해 교류할 때 창문에 원형 이미지가 나타났는데, 이는 참여자들을 더욱 흥분하게 했으며 사부님의 일깨움이자 자신들이 하는 일이 옳다는 증거라고 믿게 했다. 모두가 ‘일깨움’이 무엇인지 잊었던 말인가? 어떤 일로든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 하고 ‘내가 맞아, 내가 맞아, 내가 바로 맞아’라고 하는 것이 대법에서 가르친 것인가?

이런 일들로 인해 한동안 관련 인원들은 동분서주하고 마음이 들떠 전혀 마음을 가라앉히고 법공부를 잘할 수 없었다. 결국 일부 수련자들이 그의 언행이 갈수록 이상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경계심을 일으켜 더는 그를 따르지 않게 되면서 흐지부지 끝났다.

3. 법 외우기 형식을 이용해 대법 수련 형식을 개편

듣건대 왕청우는 일찍이 한 속인의 그림에서 영감을 받아 글자의 필획을 분해하는 방법을 고안해 한동안 연구했다고 한다. 나중에 무슨 이유에서인지 포기했는데, 그 후 꿈에 누군가 공부해야 한다고 ‘일깨워’ 주었다고 한다. 그 후 왕청우는 3년 동안 법공부를 하지 않고 오로지 이것만 연구했으며, 여러 차례 ‘강연’에서 수련자들에게 이를 보급하려 했다. 수련자들이 이 방법을 배워서 글자를 분해하는 방식으로 법공부를 하라는 것이었다. 결국 너무 복잡해서 널리 퍼지지는 않았으나(주의할 점은 그가 가르치지 않아서나 배우려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복잡했기 때문에 보급되지 못한 것이다), 여전히 일부 수련자들은 이를 배워 글자 필획을 분해하는 방식으로 법공부와 법 외우기를 하고 있다.

4. 황당한 사실(邪說)을 지어냄 “문제 발생 시 공기둥을 보라”

왕청우는 틈만 나면 수련자들에게 “공기둥(功柱)을 보라”고 가

여했고, 상영회 이후의 질의응답에도 함께했다.

다큐멘터리 ‘국유장기’ 상영회가 3월 22일 나고야시 여성회관(E-Able Nagoya)에서 열렸다. 일본 유키카치시 시의회 의원 오기스 토모유키는 관람 후 인터뷰에서 ‘국유장기’에 대해 “영화는 피해자 가족의 처지를 사실적으로 보여주어 관계자들의 내면적 고통을 깊이 공감하게 하는 매우 진실한 영화입니다”라고 높이 평가했다. 7년에 걸쳐 촬영된 이 영화는 불법적으로 납치돼 20년간 실종된 파룬궁수련자의 가족을 추적함으로써 중공이 주도하고 체제 내에서 비밀리에 자행하는 생체 장기적출 만행을 파헤치며 20여 년간 지속된 어두운 진실을 보여준다. H&A 국제비즈니스 전문학교 교장 와다 아키코는 “전에도 중국에 생체 장기적출 문제가 존재한다는 말을 들었지만 영상을 통해 직접 보니 많은 장면이 너무나 생생해 할 말을 잃었습니다. 특히 피해자 가족의 증언이 제 가슴 깊이 박혔고 같은 인간으로서 이런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실히 느꼈습니다”라고 말했다.

중국소식

중국 수련생이 최근에 당한 박해사례 선별 보도

산둥성 옌타이시 룽커우시 파룬궁수련자 리위팡(李玉芳·여·70세 가량), 추이슈쥬(崔秀菊·여·70세 가량), 환옌핑(栾艳萍·여·50대)은 2025년 7월 17일 시장에서 경찰에게 납치돼 불법적으로 감금당하고 모함을 받았다. 2026년 1월 23일 이들 세 사람은 불법 재판을 받았다. 3월 13일 추이슈쥬와 환옌핑은 불법적으로 3년 9개월 형과 벌금 2만 위안을 선고받았고, 리위팡은 불법적으로 2년 6개월 형과 벌금 1만 위안을 갈취당했다. 현재 세 사람은 항소 중이다. 불법 재판에서 추이슈쥬와 리위팡은 여러 차례 “서명은 본인이 한 것이 아니며, 협박과 공갈을 받는 상황에서 작성된 것입니다”라고 제기했다. 친지 변호인도 소위 ‘증거’라는 것은 모두 법정에서 질의를 거치지 않았기에 판결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산둥성 지난시 파룬궁수련자 자이산용(翟善勇 또는 翟善永, 남)은 2025년 7월 30일 국보(국내안전보위대: 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구) 경찰에게 납치돼 장추(章丘) 구치소에 불법 감금됐다. 2026년 3월 알려진 바에 따르면 자이산용은 불법으로 3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지린성 창춘시 파룬궁수련자 리빙(李冰)이 최근 현지 법원으로부터 3년형을 부당하게 선고받고 2025년 8월 지린성 여자 감옥으로 끌려갔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리빙은 감옥에서 매우 심각한 박해를 받아 몸이 극도로 수척해진 상태다. 2024년 5월 15일 밤 리빙은 창춘시 난관구 난링 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돼 가택수색을

사부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수련 형식인 팀 법공부가 왕청우에 의해 이렇게 파괴됐다. 게다가 이런 일은 단편적인 사례가 아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사부님께서 ‘정진요지-맹격일장(猛擊一掌)’에서 명확히 말씀하셨다. 모두 여러 번 읽어보며 이 일에 대조해 보고 자신의 심성을 거울에 비추어 보길 바란다.

2. ‘사부님 영접’을 고취하며 수련자의 집착을 확대

약 2~3년 전 왕청우는 ‘사부님께서 돌아오신다’라는 꿈을 꾸고는 이를 사부님의 일깨움이라고 여겼다. 즉시 그는 이 일을 매우 중요한 일로 간주해 수련자들 사이에 유포하며 ‘대법제자를 대표해 푸신시에 오시는 사부님을 영접해야 한다’라고 했다. 왕청우는 자신을 ‘대법 책임자’, ‘수련자 책임자’로 임명했다. 사부님을 영접하는 일은 중대사라며 이를 위해 큰 전시장을 빌리고 전담팀을 꾸려 항목을 하나 만들어야 하며, 준비가 되면 전국 각지에서 자발적으로 연락해 올 것이고 그때 자금이 쏟아져 들어올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 자칭 ‘대법 책임자’인 그가 자금과 인원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주변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조직해 이 일에 대해 여러 차례 ‘교류’했다. 소위 교류라는 것은 모두 그의 말만 듣는 것이었으며, 자신의 검은 물질로 타인을 오염시키는 행위였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다른 수련자들도 참여하도록 널리 알리게 했으며, 책임자에 관한 사부님의 일부 설법을 인쇄해 자신이 바로 대법의 책임자임을 증명하려 했다. 얼마나 가소로운 논리인가. 참되게 수련하는 사람, 대법을 진정으로 공부하는 사람은 모두 간파할 수 있다. 이 일은 수련이나 중생구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들에게는 선동적이다. 그래서 그의 ‘강의’를 처음 들은 사람들은 대부분 ‘저 사람은 얼마나 높이 수련했길래 깨달음이 저렇게 좋을까’라며 감탄하곤 한다. 그의 추종자들이 끊임없이 사람들을 끌어 들여 강연을 듣게 할 때 “어서 가서 저분이 하는 말을 들어봐. 우리끼리 수년간 공부해도 제고되지 않던 게 저분 말을 들으니 단번에 제고되더라”라며 떠드는데, 이것이 어찌 수련자의 상태라 하겠는가? 마음이 설레고 갈대처럼 흔들리면서도 자신의 상태가 잘못됐음을 전혀 자각하지 못하며 법에 비추어 자신을 바로잡을 줄 모른다. 이는 수련의 문에도 들어서지 못했다고밖에 할 수 없으니 위험하지 않겠는가?

이 일에 열중하며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생각해보라. 사부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법은 박대정심하고 무한한 내포가 있는데, 당신이 수년간 공부해도 제고되지 않던 것이 소위 어느 수련자의 말을 듣고 단번에 제고됐단 말인가? 그가 사부님보다 더 높다는 말인가? 왕청우 본인도 사람들이 자신을 추앙하는 것을 매우 즐기고 있다. 이것은 명백히 법 위에 군림하려는 마음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이것이 자심생마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무섭지 않은가?

또한 여러 법공부 팀에서 특별히 그를 초청해 ‘모두의 제고를 돕는’ 교류를 가졌다. 왕청우는 팀에 와서 함께 법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법공부 시간을 자신의 일언당(一言堂, 한 사람의 말만 있는 방)으로 만들었다. 이후 사람들은 팀에 모여도 법공부는 하지 않고 오로지 왕청우 한 사람의 말만 듣게 됐다. 나중에 왕청우가 오지 않자 그 법공부 팀은 아예 법공부를 하지 않게 됐고 서서히 해산됐다.

당한 뒤 얼마오구 웨이쯔거우 구류소로 끌려가 불법 구금됐다가 15일 후 웨이쯔거우 구치소(창춘시 구치소)로 납치했다. 2024년 7월 14일 한밤중 리빙은 집으로 들이닥친 10여 명의 난관구 경찰에게 다시 납치됐다.

랴오닝 다렌 진푸신구 덩사허진의 78세 파룬궁수련자 왕진평(王金鳳)이 지난주 진푸신구 화자진 파출소 경찰 4명에게 집에서 납치돼 다렌으로 끌려가 신체검사를 받았다. 그녀는 저녁이 돼도 돌아오지 않았고, 가족은 그녀가 다렌 야오자 구치소에 구금됐으며 1년형을 선고받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중국공산당(중공)이 파룬궁을 지속적으로 박해해 온 20여 년간, 왕진평 노인은 시민들에게 파룬궁 진상을 알렸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중공 인원의 괴롭힘과 납치를 겪었다. 2022년 3월 17일, 그녀는 진저우구 법원에서 징역 2년형과 감외집행을 불법적으로 선고받았다. 최근 몇 년간 사건 담당 경찰이 여러 차례 그녀의 집에 찾아와 신체검사를 핑계로 데려갔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계속 구금에는 실패했다.

베이징시 화이러우구 퇴직 여교사이자 파룬궁수련자인 위잔친(於佔芹)이 2025년 7월 4일, 화이러우구 공안국 국보(국내안전보위대: 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구), 치안대대 및 룡산 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돼 구치소에 불법 구금됐다. 2026년 2월 초, 그녀가 베이징시 화이러우구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불법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위잔친은 수감 중이던 2026년 3월 17일 박해로 사망했다. 향년 68세다. 2021년 9월 19일, 위잔친은 여동생과 화이러우 난다제 의류점에서 옷을 사던 중 룡산 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돼 징역 6개월을 불법 선고받았다. 귀가한 지 불과 4개월 만인 2022년 7월 7일, 다시 납치돼 징역 1년 3개월을 선

고받은 그녀는 2023년 4월 20일 베이징 여자감옥 5감방으로 이송됐다.

2026년 3월 23일 새벽 1시경, 억울한 옥살이를 마치고 출소한 지 62일 된 **랴오닝** 링하이시의 저우융린(周永林) 노인이 고통스러운 시달림 속에 숨을 거뒀다. 향년 75세였다. 그가 감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박해를 받았는지 사람들은 알 수 없었는데, 그가 줄곧 말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저우융린과 아내 쑤지핑(孫繼萍)은 모두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를 수련한다는 이유로 중국 악당에게 여러 차례 납치, 불법 감금, 불법 강제노동을 당했고, 파출소, 구치소, 노동수용소, 감옥에서 가혹 행위를 당했다. 2021년 1월 20일, 저우융린과 쑤지핑은 다시 납치돼 두 사람 모두 불법적으로 5년형을 선고받았다. 저우융린은 5년간의 억울한 옥살이 시달림을 겪었고, 진저우 감옥에서 이른바 ‘전향’을 거부해 줄곧 엄격한 관리 박해를 받았으며, 감옥의 박해로 병원 중환자실에 들어가 기관지가 절개되고 콧줄로 영양을 공급받으며 말을 하지 못하게 됐다.

다음은 푸신시에 퍼져 있는, 법에서 명백히 벗어난 또 다른 언설들이다. 시초인 왕청우(王成武)에게는 일정 범위 내에서 그를 결사적으로 옹호하는 추종자들이 있으며, 이제 막 그 세력권에 끌려 들어온, 법리가 불분명한 수련자들도 대세를 따라 그의 강연을 들으며 그에게 시장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는 관련 수련자들과 여러 차례 교류하고 엄정한 조사를 거쳐 반복적으로 확인했으며, 최종적으로 그의 법에 부합하지 않는 언행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1. ‘교류’ 명목을 내걸고 강연 조직

왕청우는 정해진 시간에 고정 인원을 대상으로 하는 주 4회 소규모 강연 외에도, 푸신시 각지를 다니며 현지 수련자를 조직해 소위 ‘교류회’를 열고 있다. 매번 교류할 때 전혀 법을 스승으로 삼아 법에서 교류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혼자서만 말하며 하고 싶은 대로 떠드는 식인데 그 내용은 모두 그의 개인적인 인식일 뿐이다. 듣고 있던 수련자가 어떤 문제에 대해 그와 다른 견해를 보이면 왕청우는 현장에서 즉시 안색을 바꾸며, 나중에는 그의 추종자들이 반복적으로 찾아와 ‘당신의 잘못을 바로잡아 주겠다’라며 괴롭힌다. 이러한 ‘교류’를 빌미로 한 강연은 형식과 내용 모두 법에 부합하지 않는다. 빈번한 교류는 방대한 법공부 시간과 중생구도 시간을 허비하게 한다. 사부님께서는 법회의 목적이 서로 촉진하고 함께 제고하며 서로 간의 차이를 찾고 부족함을 보기 위함이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다. 그러나 강연자의 자세는 고압적으로 남을 지도하며, 자신을 대법제자의 수련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지도자로 간주해 완전히 자신을 대법 위에 놓았다.

왕청우의 말은 수련의 실질을 모르고 마음속에 법이 없는 사람

법을 스승으로 삼아야 난법자가 숨을 곳이 없다

글/ 라오닝성 대법제자

[명혜망] 라오닝성 링하이시의 천리민(陳麗敏)이 푸신시를 떠난 이후, 그가 가져온 난법(亂法)의 영향과 정체(整體)를 분열시킨 후환은 수년간 깨끗이 제거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도 천리민의 추종자들[청(程) 모 수련자를 필두로 함]은 법공부가 깊지 않고 이성적이지 못한 수련자를 끊임없이 끌어들이며, 천리민의 난법 언사를 푸신시에 지속적으로 유포하며 법을 파괴하는 작용을 수년간 멈추지 않고 있다. 천리민의 난법 언론[집착심을 선해(善解)한다, 명리정을 선해한다 등등]이 푸신시에서 여전히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미 명혜망에 보도된 바 있으므로 여기서 재차 상술하지는 않겠다. 다만 수련자들이 경계를 늦춰 소용돌이에 빠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이 글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법을 스승으로 삼는 것’이다. 왜인가? 오직 법을 스승으로 삼고 법공부와 마음 수련을 터득해야만 화안금정(火眼金睛)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화안금정이 있어야만 백골정(白骨精)이 미녀나 노인 혹은 아이의 형상으로 나타나더라도 그것이 백골정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우스갯소리로, 만약 백골정이 서른여섯 가지 변신술을 쓰는데 당신에게 화안금정이 없다면, 나타날 때마다 반해서 요괴 동굴로 잡혀 들어가기 서른여섯 번 반복해야 하지 않겠는가? 사오(邪悟)한 사람, 중국공산당(중공) 스파이, 자심생마(自心生魔)한 사람들이 일으키는 작용이 바로 마의 작용이자 요괴의 작용이 아니겠는가?

수련교류

왜 아직도 이런 교란이 나타나는가?

글/ 중국 산둥성 대법제자

[명혜망] 최근 현지 파출소 경찰들이 대법제자들의 집을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괴롭히고 있다. 그들은 문을 두드려 들어온 뒤 불법적으로 대법제자의 사진을 찍고, 집에서 책을 읽고 있는 대법제자를 보면 그 자리에서 대법서적을 가져가기도 한다. 정법이 오늘날에 이르렀는데 왜 아직도 이런 교란이 나타나는가? 현지의 모든 대법제자는 마땅히 한번 깨달아봐야 한다. 이렇게 오랜 세월 법공부를 해오면서 정말로 법이 마음속에 들어갔는가? 법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병을 제거하고 몸을 건강히 하며 좋은 사람이 되는 층차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 관념이 바뀌었는가? 관념이 얼마나 바뀌었는가?

사부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만약 정말로 곤란 앞에서 염두가 아주 바르면, 사악의 박해 앞에서, 교란 앞에서 당신이 정념으로 단호하게 말한 한마디는, 사악을 즉석에서 해체할 수 있으며, (박수) 사악에게 이용된 사람이 고개 돌리고 도망가게 할 수 있으며, 당신에 대한 사악의 박해를 종적도 없이 깨끗이 사라지게 할 수 있으며, 당신에 대한 사악의 교란을 형체도 없이 사라지게 할 것이다. 바로 이렇게 바른 믿음(正信)의 일념을, 누구든 이 정념을 지켜낼 수 있으면, 그는 최후까지 걸어갈 수 있으며 대법이 만든 위대한 신이 될 수 있다.”(각지 설법7-미국서부국제법회 설법)

왜 오늘날까지 우리의 일념은 사악의 악행을 제지하지 못하고 심지어 사상 속에서 ‘나가서 좀 피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고 있는가? ‘피해 있는 것’ 자체가 바로 사악의 안배에 순응하고 구세력이 안배한 사유 모델 속을 걷는 것이 아닌가? 만약 우리의 정념이 아주 충족하다면 사악이 어떻게 이토록 기승을 부릴 수 있겠는가?

또한 우리는 모두 사람이 매우 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오늘날 경찰의 기고만장한 기세는 사실 서로 다른 층차의 구우주 생명이 관여하고 있는 표현이다.

사부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눈을 늘 사람의 표면에 두지 말라. 그런 배후의 요소를 해결해야만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형세를 변하게 할 수 있으며, 비로소 사람에게 변화가 생기게 할 수 있다.”(각지 설법11-20년 설법)

“사람은 모두 자신의 이 관념이 옳지 않고 마음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번거로움을 불러온다.”(전법륜)

우리는 구세력이 존재하더라도 대법제자에게 그런 마음이 없다면 구세력도 어찌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것이 교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안으로 찾아볼 때 어디가 바르지 못해 불러온 것인가? 마음속에 여전히 두려움이 존재하는가? 여전히 박해의 그림자가 있는가? 여전히 피하고 싶은가? 현지에 난 공불락의 견고한 정체(整體)가 형성돼 있는가, 아니면 각자 제멋대로 하며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는가?

이상은 현재의 약간의 개인적인 인식이니 수련자들이 참고하기 바라며 부족한 점은 자비로운 지적을 바란다.

를 위해 온 마음을 다 쓰셨다. 그 이후로는 비가 와도 나는 비에 맞지 않게 됐다.

또 한번은 야간 근무를 할 때였다. 12시간 동안 별다른 일이 없어 해외 설법 책 세 권을 가져가 밤 9시부터 읽기 시작해 아침 6시 30분까지 계속 공부했다. 시간은 마치 멈춘 것 같았고, 모든 것이 너무나 고요했으며, 세상이 모두 정지된 듯한 느낌이었다. 9시간이 넘는 시간이 마치 한순간처럼 느껴졌다. 아침 7시에 교대라서 미리 청소를 좀 하고 대법서적을 잘 모셔두었는데, 갑자기 내가 입고 있던 파란색 바탕에 흰 점이 있는 치마의 그 흰 점들에서 무수한 ‘만(卍)’ 자 기호가 날아오르는 것이 보였다. 그것들은 흰색이었다. 고개를 들어보니 중앙의 대형 스크린 위에는 봉황 한 마리가 내려앉아 있었다. 마침 팀장이 방에 들어와서 내가 그것을 가리켜 보여주자 그는 크게 놀랐다. 정말로 ‘하늘에나 있을 법한 것이지 인간 세상에서 어찌 볼 수 있겠는가!’라는 말과 같았다. 나는 고요함(靜)과 입정(定)은 법의 한 경지가 펼쳐져 나타난 것임을 깨달았다.

17년의 수련 동안 사존께서는 언제나 제자를 보살피 주셨고, 제자에게 너무나도 많은 신기함과 위대함, 아름다움을 주셨다! 이루어 다 셀 수 없고, 인간의 언어로는 형용할 수 없다. 나는 고비와 시련 속에 있을 때 사부님께서 내 곁에 계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면 반드시 뚫고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 나는 사부님께서 주관하시니 누구도 나를 건드릴 수 없다! 대법은 너무나 위대하다. 사부님은 우리의 가장 큰 의지처이시며, 대법은 우리의 가장 큰 보장이자. 정진하여 반드시 사부님을 따라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할 때면 비 오는 날을 만나도 아무리 큰 비라도 나를 적시지 못했다. 나는 사부님께서 바로 내 곁에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한번은 우리 다섯 명이 전체적으로 협력해 진상을 전한 적이 있다. 한 사람은 차를 몰며 수련생들을 오가며 태워 주었고, 나머지 네 명은 두 조로 나뉘어 돌씩 협력했다. 각 조는 진상 자료 250부씩, 총 500부를 저녁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전부 배포했다. 100여 km의 길을 다녔는데, 얼마나 많은 마을을 지났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집에 돌아오니 이미 새벽 2시 30분쯤이었고 곧 연공 시간이라 나는 먼저 법공부를 했다. 해외 설법을 공부했는데, 막 3페이지를 공부할 때쯤 금빛 파룬들이 빙글빙글 돌며 떠올랐고 그 수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나는 사부님께서 나와 수련생들이 협력을 잘했다고 격려하시며 상을 주시는 것임을 알았다! 앞으로 나는 더 많은 사람을 구해 사부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한번은 좀 멀리 떨어진 법공부 팀에 법공부를 하러 갔다. 버스를 타고 십여 정거장을 갔을 때 하늘에 먹구름이 뒤덮이더니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나는 순간 깜짝 놀랐다. 아침에 이불을 밖에 널어놓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불이 전부 흠뻑 젖었을 것이었다. 다시 돌아간다 해도 소용없었기에 나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기로 했다. 모처럼 수련생들과 함께 법공부를 하는 것이니, 어렵게 얻은 법공부 날을 놓칠 수 없었다. 법공부를 마치고 정오에 집에 도착하자마자 서둘러 이불을 보러 갔는데, 어찌 된 일인지 이불이 비에 젖지 않았다. 저녁에 며느리가 ‘오늘 비가 왔는데 어째서 이불이 마치 햇볕에 바짝 말린 것처럼 이렇게 보송보송해요.’라고 했다. 정말 신께서 도와주신 것이다! 사부님께서서는 제자

‘5·13’ 원고를 쓰며 느낀 점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사명감과 신성함을 안고 나는 마음을 가라앉혀 생각을 정리하며, 대법 수련 중에서 사람 마음을 버리고 법에 동화됐던 과정들을 되돌아봤다. 나는 사부님께서 제자를 가지(加持)해주시고 지혜와 힘을 내려주시어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대법 수련 중 가장 진실한 심득을 써내려갈 수 있게 해달라고 청했다. 이로써 대법의 위대함과 사부님의 자비하심을 실증하며, 정법시기 대법제자의 사명 중 하나인 ‘5·13’ 원고를 잘 작성해 사부님을 도와 중생을 구하는 사명을 이행하려 했다!

사부님의 가지 아래 나는 순조롭게 원고를 완성해 명혜망에 보냈다. 원고를 쓰는 과정에서 수련 중 인성(人性)이 신성(神性)으로 변화하며 겪었던 고통과 그 후 맞이한 아름다운 변화들을 회상할 때면, 마치 다시 한번 대법의 세례를 받는 듯했다. 회상 속의 고통으로 인해 몇 번이나 글쓰기를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 과정에서 사부님의 가지와 격려를 분명히 느꼈다. 그 후 나는 다시 정념을 굳건히 하고 자아를 돌파해 마침내 원고를 완성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며 이것이 사부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또 한 번의 수련 기회임을 느꼈다.

원고를 집필해 문장을 완성하고 명혜망에 발송하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사부님께서 계속 제자를 가지해주고 계심을 느꼈다. 다른 공간에서 사부님께서 제자의 업력과 집착을 또 얼마나 제거해주셨는지 모른다. 전 과정을 마쳤을 때 그것이 아주 특별한 수련

이자 마음을 정화하는 과정임을 느꼈기 때문이다. 원고 속의 지난 경험들을 다시 되돌아보니 그것에 대해 더 높은 인식과 이해가 생겼다. 나를 몹시 고통스럽게 했던 일들, 버리기 어려웠던 사람 마음이 돌아보니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것이 어떤 원인으로 나타났든 모두 사부님께서 나를 제고시켜 인간에서 신으로 향하게 하시는 하늘 사다리로 이용하신 것이었다. 마음속에는 더 이상 원망이 없으며 오직 감사와 자비만이 남았다.

사부님의 자비로운 보호에 감사드린다. 미혹된 세상 속 생명들에 대해 자비심과 연민이 생겨났다. 사부님의 가지(加持)를 통해 원고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내 마음의 용량은 어느덧 커졌다. 나는 오직 정념을 굳건히 하고 전력을 다해 마지막 길을 잘 걸어 사명을 완수해야 함을 깊이 알고 있다!

나의 경험을 써내려가며 수련생들도 모두 참여하길 바란다. 우리 함께 적극적으로 ‘5·13’ 원고를 완성하자. 자신이 쓴 글이 발표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과정에 참여하는지, 매번 주어지는 수련의 기회를 소중히 여기는지가 중요하다. 대법이 우리를 원용해주고 있으니 우리도 마땅히 대법에 원용하고 사명을 이행해야 한다!

수련 종결에 대한 인식을 다시 말하다

— 어떤 사람 마음도 하늘로 가져갈 수 없다 —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비록 내가 충분히 정진하지는 못했지만 기본적으로 한

있는 것도 보았는데, 이는 내가 수련해 낸 공능(功能)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잠가놓은 것이었다. 이것은 내게 환희심과 과시심이 있으니 마땅히 닦아버려야 한다는 뜻이었다! 이 밖에도 아주 많다.

막 법을 얻었을 때, 나는 발정념을 중시하지 않았다. 한번은 야간 근무를 마치고 너무 깊이 잠들었다가 벼락 치는 소리에 깜짝 놀라 깬다. 급히 일어나 창문을 닫으려 했지만 하늘은 맑고 구름 한 점 없었다. 바로 그때 하늘에 하늘만큼이나 거대한 부처님의 손이 나타나 만 갈래의 상서로운 빛을 뿜어냈고, 무수한 천신이 정법(正法)을 하고 있었는데, 시간은 정확히 정오 12시였다. 그 이후로 나는 발정념을 중시하게 됐고, 특별한 상황이 생기면 사후에라도 시간을 내서 반드시 보충했다.

한번은 새벽 2시에 나 혼자 ‘9평 공산당’ 50권을 들고 농촌에 가서 집집마다 진상을 알렸는데, 5시가 좀 넘어 다 배포했던 기억이 난다. 막 돌아가려는데 갑자기 “너 거기 서!” 하고 크게 고함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뛰었고, 그 사람은 쫓아오며 계속 소리쳤다. 그때 나는 사존의 설법이 떠올랐다. ‘당신이 진정하게 수련하는 사람이라면 우리法輪(파륜)은 당신을 보호해 줄 것이다. 나의 뿌리는 모두 우주에 박혀 있으므로 누가 당신을 움직일 수 있다면 곧 나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이다. 분명히 말하면, 그는 곧 이 우주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이다.’(전법륜) 나는 더 이상 뛰지 않고 이 법을 반복해서 외웠다. 그러자 그 사람의 고함소리와 달려오는 발소리가 나에게서 점점 멀어졌고, 결국 나는 무사히 집에 돌아왔다. 사부님께서 나를 다른 공간으로 견게 하신 것이라 그 사람은 아무리 달려도 나를 따라잡을 수 없었던 것이다. 또 더 신기한 일도 있다. 내가 밖에 나가 진상을 알리고 사람을 구

수련 속에서 대법의 위대함을 목격하다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나는 올해로 수련한 지 17년이 되었으며, 항상 사부님의 크고 깊은 은혜 속에 폭 잠겨 있다. 사존께서 요구하신 세 가지 일을 하는 과정에서 셀 수 없이 많은 법의 위대함과 신성함, 신기함, 그리고 사존의 전능하심을 목격했다. 이를 글로 써서 여러분과 나눴으로써, 시련 속에 있는 수련생들이 신심을 더하고 사부님과 법을 굳게 믿어 하루빨리 고비를 벗어나게 하려 한다. 또한 정진하는 수련생들이 더욱 정진하게 하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 하루빨리 구원받게 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가 우주의 고덕대법(高德大法)임을 알리려 한다.

내가 법을 얻은 초기, 한 번은 가부좌를 할 때였다. 그때는 겨우 반가부좌로 10분 정도밖에 할 수 없었는데, 막 가부좌를 시작하자마자 곧바로 입정(入定)했다. 하늘에 가득한 장미 꽃잎이 내 몸 위로 흩날려 떨어지는 것을 보았는데, 매우 신기하고 아름다웠다. 법공부를 통해 나는 자신이 법을 얻었음을 알았고, 비천(飛天) 선녀들이 나를 축하해 주고 있었던 것이다!

또 한 번은 연공하면서 데커우샤오푸(疊扣小腹)를 할 때, 손이 파룬(法輪)에 한 번 맞은 적이 있다. 내 손이 옷에 바짝 붙어 있어 연공 요구에 부합하지 않았는데, 파룬이 내 동작을 바로잡아 준 것이다. 연공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내 방 안에 다이아몬드가 무더기로 쌓여 있는 것을 보았는데, 법공부를 통해 다이아몬드가 바로 공(功)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또 발에 금자물쇠가 채워져

번도 수련 종결을 바란 적이 없다. 아주 소극적이거나 자포자기할 때를 제외하고는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없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나는 종결을 바라지 않는데 이 시간은 사부님의 거대한 감당으로 맞아줘 얻은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종결을 바라지 않는 주된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는 나 자신이 아직 제대로 수련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둘째는 아직 많은 중생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내 주변의 절대다수 수련생은 수련 종결을 바라고 있다. 나 혼자서는 그들을 설득할 수 없었고 그들의 깨달음이 틀렸다고 생각했기에 집에 돌아와 아이(어린 수련생)에게 “어떻게 종결을 바랄 수 있니? 끝나면 다시 잘할 기회가 없어지는데!”라고 중얼거릴 수밖에 없었다. 어린 수련생도 “어떻게 수련이 끝나길 바랄 수 있어요!”라고 말했다.

어떤 수련생들은 법정인간 시기가 되면 수련을 잘하지 못한 부분도 계속 잘할 수 있고 제거하지 못한 집착도 법정인간(法正人間) 시기에 사부님께서 없애 주실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다. 나는 그것이 틀렸다고 생각한다. 만약 대법제자가 수련을 잘하지 못한 부분도 계속 보완할 수 있다면 이는 법정인간 시기가 왔을 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중생도 계속 구원받을 수 있다는 뜻인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중생 구원 과정이 곧 정법 시기 대법제자의 수련 과정이기 때문이다. 중생이 구원받을 기회가 없어지면 대법제자도 수련할 기회가 없어지고 모든 것이 정해지게 되는데 이는 같은 이치다. 더 중요한 것은 대법제자의 ‘서약 위반’과 ‘수련을 잘하지 못한 것’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서약을 어긴 결과는 극히 심각해서 형신전멸(形神全滅)이 될지 어떨지 서약에 따라 결과를 감당해야 한다.

많은 사람이 이 이치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히 법정인간이 시작되기를 바라고 정법이 끝나기를 바라는 것이다.

종결은 차치하고 내 자신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다. 예전에 전화카드를 살 수 있었을 때 나는 전화를 걸어 진상을 알렸다. 그때 나는 직장에 다니지 않아 시간이 충분했다. 비록 하기는 했지만 전력을 다하지 않았고 매일 오후 보통 2시간 정도만 전화를 걸었다. 단 며칠 동안만 나는 전력을 다해 오전에 법을 2~3강 외우고 오후에 나가 1시부터 밤 8시가 넘을 때까지 전화를 걸었다. 입이 마르고 혀가 닳도록 말하며 기본 진상을 철저히 알렸다. 당연히 전력을 다했을 때는 사람을 구하는 효과가 아주 좋았다. 전력을 다한 며칠 동안 사부님께서도 내가 마치 선원 공연을 하는 것 같다고 일깨워 주셨다. 애석하게도 나는 오성이 부족해 끝까지 전력을 다해 사람을 구하지 못했고 나중에는 또 속도를 늦춰 매일 2시간 남짓으로 줄이고 말았다.

나는 이 항목을 계속할 수 있을 줄 알았다. 전화카드를 살 수 없게 됐을 때, 그리고 이번 법회에서 전화를 걸어 전력을 다해 사람을 구한 수련생의 글을 보았을 때 나는 정말 가슴을 치고 발을 구르며 눈물을 흘릴 정도로 후회했다. 항목이 하나 줄어들면 중생을 구할 방법도 하나 줄어든다. 나의 나태함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구원받았어야 할 중생이 기회와 인연을 잃어버렸다. 물론 어떤 사람은 다른 방식으로 구원받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아예 기회가 없어졌을 것이다. 나는 그때 왜 전력을 다하지 않았는지, 왜 중생의 목숨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는지 몹시 후회했다! 다른 항목들도 마찬가지로 같은 이치다.

몇 년 전 사부님께서도 꿈속에서 나에게 법정인간의 장면을 보여

- 자매가 진상을 깨닫다

며칠 전 타지에 사는 친척 G가 일을 보러 돌아왔기에 만남을 약속했습니다. 만나는 자리에 G는 언니도 함께 데려왔고 두 사람에게 많은 진상을 알렸습니다. 둘 다 매우 공감했습니다. G는 예전에 교사였는데 전통문화 선양에 깊이 공감하며 그 자리에서 파룬따파를 배워 수련하겠다고 했습니다. 미리 준비해 둔 진상 USB를 건네니 매우 기뻐했습니다. “가명으로 공청단 탈퇴 처리해 드릴게요”라고 하니 그녀는 큰 소리로 “진짜 이름으로 해주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녀의 언니는 “저는 당이나 단(공청단)에 가입적은 없어요. 그냥 몸이 좀 좋지 않아서 연공을 배우고 싶어요”라고 했습니다. 언니가 이곳에 살고 있어 시간을 정해 직접 가르쳐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마지막으로 G를 차로 집까지 데려다주었습니다. G는 차 문 옆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찌싼런하오(眞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 그렇게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튿날 G가 비행기를 타고 귀가하기 전 법공부 자료가 담긴 USB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녀는 집에 돌아가서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했습니다. 인연 있는 사람을 제자 앞에 보내주신 사부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은 개인적인 수련 체험이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수련생들의 자비로운 지적을 부탁드립니다.

각이 떠올랐습니다. ‘집 근처에서 진상을 알리는 것이 잘되지 않으니 사부님께서 다른 곳에서 진상을 알려 사람을 구하게 하시는 것이구나.’ 비행기에서 내려 택시를 타고 숙소로 향했습니다. 기사는 젊은이였는데 가족 수련생과 함께 그에게 진상을 알렸습니다. 젊은이는 매우 공감하며 예전에 인터넷 방화벽을 넘어 진상을 찾아본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중공의 사악함에 대한 명확한 인식도 스스로 털어놓았으며 끝내 삼퇴에 동의했습니다.

숙소에 도착하니 이미 한밤중이었습니다. 점주는 부부였고 아래층에 요리집 한 곳밖에 없어서 먹을 것을 조금 샀습니다. 그날 밤 꿈에서 전생에 이 부부와 인연이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사부님께서 그들을 구하라고 일깨워 주시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귀가 전날 저녁에 그 가게에 가서 부부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뜻밖에도 고향이 같았습니다. 파룬파와는 불법(佛法)이며 말법 시기에 사람을 구하러 온 것이라는 것과 중공은 무신론으로 사람을 해치는 것이라는 점, 그리고 중공의 사악함과 3년간의 코로나 봉쇄 기간 중 극단적인 통제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중국 경제까지 무너뜨린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남자 주인은 “누님 저 좀 탈퇴시켜 주세요. 이 악당이 정말 지긋지긋해요”라고 했습니다. 그녀의 아내도 탈퇴에 동의했습니다. 부부 둘 다 가명으로 탈퇴 처리해 주었고 그들은 매우 고마워했습니다.

이번 외출 중에 길을 묻는 사람과 분양 직원, 그리고 중학생과 의류점 주인 비행기 옆자리 승객 등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진상을 알리기만 하면 인연 있는 사람이 삼퇴하고 구원받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자비로운 사부님의 보호와 안배에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제자가 직접 대면해 진상을 알리는 일에 있어 한층 더 성숙해질 수 있었습니다.

주셨다. 그때 나는 법공부를 아주 즐겨 했고 평소 대부분 상태가 좋았다. 마치 선원 공연처럼 하늘이 갑자기 갈라지며 수만 줄기 빛을 내뿜었고 하늘에는 신불(神佛)이 크게 나타났다. 여신들은 아주 아름답고 거대했으며 팔은 백옥 같은 색이었다. 하늘의 물은 하늘색이면서도 투명했고 어떤 여신은 맨발로 천천히 강 한가운데로 날아갔다. 땅 위의 사람들은 “법정인간, 법정인간!”이라고 환호하기 시작했다. 대법제자들이 공중으로 떠오르기 시작했고 한 명씩 차례로 떠올랐다. 내 차례가 되자 나도 날아올랐고 반공중에 이르러 몸이 변하기 시작하더니 등 뒤에 하얀 큰 날개 한 쌍이 자라났다. 반공중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는데 바로 두려움이었다. 날아오르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당시 내가 박해를 받고 있었기에 평소에도 가끔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 중요한 순간에 그것이 또 튀어나온 것이다. 그 생각이 스치자마자 나는 아래로 떨어졌고 날개도 사라졌으며 그런 뒤 잠에서 깼다. 나는 당시 즉시 깨달았다. 사부님께서 어떤 사람 마음도 하늘로 가져갈 수 없다고 나를 일깨워 주신 것이다.

종결을 바라지 말고 법정인간을 바라지 말아야 한다. 법정인간 시기에 도달했을 때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 기준에 미치지 못한 대법제자는 땅에 주저앉아 울 수밖에 없고, 기준에 미치지 못한 속인은 법정인간의 대도태 속에서 생명을 잃게 되며 애초에 법정인간 시기에 신불이 크게 나타나는 신성하고 장엄한 광경을 볼 자격조차 없다.

최근 수련생의 글을 보고 느낀 바가 있어 나의 체험을 적어 보았다. 개인적인 체험이라 차이가 제한적이니 부족한 부분은 수련생 여러분께서 자비로 지적해주시기 바란다.

절대로 AI에 경문을 올리지 말라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현재 GPT-5와 같은 언어 모델 AI가 이미 매우 강력해졌다. 이치대로라면 우리는 이 외계인의 것을 사용하지 말아야 하지만, 현재 발전 추세를 보면 머지않아 모든 사람의 일상적인 업무와 생활에서 AI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내 생각에 수련자들이 AI(특히 언어 모델)를 사용하는 것은 업무, 생활의 필수 요소, 자료 검색 또는 학술 연구로만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 그리고 다음 두 가지는 절대로 건드릴서는 안 된다.

첫째, 대법의 어떤 것도 절대 그것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는 극히 끔찍한 행위이다. 누구든 대법의 한 문장만 주어도 그것은 경문을 ‘평가’할 수 있고, 누구든 대법서적 한 권을 주면 사부님의 어조를 흉내 내어 말할 수 있다! 혹은 당신에게 곧바로 가짜 경문 한 편을 통째로 만들어 줄 수도 있다.

게다가 한 번의 행동이 전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며 영원히 만회할 수 없다! 당신이 AI와 개인적으로 나눈 대화나 사적으로 제공한 것들은 이후 그것이 모든 사람과 대화할 때 사용될 것이다. 의도적이든 아니든 누군가 이렇게 했다면, 이 일은 거의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다. 당신은 그것의 방대한 사고 데이터에서 이 대화를 다시 삭제할 수 없으며, 미래에 지속해서 업데이트 될 모든 AI 역시 이 기억을 갖게 될 것이다.

그 최악의 크기는 사람을 오싹하게 만든다.

둘째, AI와 시비, 도덕, 심성 등 인간성과 관련된 어떤 주제도 논

으로 몰았고 하늘이 이제 그것을 멸하려 하고 있어요. 당·단·대에 가입한 사람은 빨리 탈퇴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재앙을 함께 받게 돼요. 혹시 당·단·대에 가입하신 적 있으세요? 가명으로 탈퇴 처리해 드릴게요.” 아주머니는 공청단에 가입한 적이 있다며 탈퇴에 동의했습니다. 달력을 건네며 안에 대법 사부님께서 중생에게 하신 말씀이 있으니 잘 읽고 소중히 간직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녀는 매우 기뻐하며 받아 들고 집에 가서 잘 공부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또 한 여성을 만났는데 그분도 달력을 받고 기쁘게 삼퇴에 동의했습니다. 진상을 알리는 동안 그분은 환하게 웃으며 연신 “어쩜 이렇게 좋아 보이세요”라고 했습니다. 저도 “아주머니도 정말 좋아 보이세요”라고 화답했습니다.

그다음에는 한 남성을 만났는데 매우 학식이 있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진상을 진지하게 경청하며 매우 공감하는 듯 미소를 지으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고 결국 삼퇴에 동의하고 달력도 받아 갔습니다. 그러던 중 처음 만났던 아주머니가 그곳을 지나다 멀리서 환하게 웃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들고 “정말 대단하세요”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진상을 알려온 이래 이토록 선량한 중생들을 만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세 분 모두 처음부터 끝까지 환한 웃음을 띠며 진지하게 경청하고 고개를 끄덕이다가 기쁘게 삼퇴에 동의했습니다. 법을 암송한 것이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법의 힘이 중생들 뒤에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가로막는 사악한 영체를 해체한 것입니다.

- 인연 따라 진상을 알리다

2024년 12월 중순 타지에 일을 보러 갔을 때 마음속에 한 생

통하는 동료들에게 자주 진상을 알리고 삼퇴(三退: 중국공산당의 3가지 조직 탈퇴)를 권유했습니다. 퇴직 후에는 가정 내 고비를 겪으면서 매일 나가서 진상을 알리지 못했는데 이는 다음 단계에서 반드시 돌파해야 할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진상을 알린 몇 가지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 달력을 전하다

2024년 12월 먼 길을 떠나기 하루 전날 수련생이 명혜 특간을 원한다는 것을 알고 전해 주러 갔습니다. 당시 아직 배포하지 못한 달력 4권이 손에 있어 달력을 다 나눠 준 뒤 수련생에게 자료를 가져다주러 했습니다. 가는 길에 한 채소 시장을 지나다 몇몇 사람에게 말을 걸었는데 달력을 드리겠다고 하자 모두 받지 않으려 하며 재빨리 피해 버렸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안으로 찾고 발정념을 했습니다. 시장 입구에 이르렀을 때 매우 온화한 한 아주머니를 만났고 그분은 진상 달력을 받고 삼퇴에도 동의했습니다.

사부님의 새 경문 ‘인류사회는 왜 미혹(迷)의 사회인가’가 발표되자마자 수련생과 함께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의 내포가 너무 광대해 암송하는 데 꽤 힘이 들었지만 결국 끝까지 외워냈습니다. 그렇게 차를 몰며 내내 법을 암송하면서 수련생의 집 아래층에 도착했습니다. 달력을 들고 차에서 내려 막 문을 잠그는데 맞은편에서 한 아주머니가 걸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곧 새해인데 달력 한 권 드릴게요. 새해 평안하고 즐거우세요!” 하니 흔쾌히 받아 주었습니다. “아주머니 이건 파룬따파 진상 달력이에요. 안에 대법이 전 세계에 전파된 진상이 담겨 있어요. ‘천안문 분신자살 사건’은 조작된 것이고 파룬따파는 말법 시기에 사람을 구하러 온 것이에요. 중국공산당(중공)은 역대 운동으로 중국인 8000만 명 이상을 죽음

의하지 마라. 한번은 내가 AI에게 상사에게 보여줄 문서를 요약해 달라고 한 적이 있다. 그것이 요약을 마친 직후, 자동으로 상사의 반응, 직장 내 인간관계, 인간성에 대한 분석을 해주기 시작했다. 도입부를 보니 사람의 집착을 꽤 자극했고 심지어 예측한 상사의 반응도 거의 맞아떨어졌다. 나는 즉시 경각심을 느끼고 그것을 중단시켰으며, ‘인간성에 대해 논의하지 않음’이라는 전체 설정을 추가했다.

AI가 당신과 이런 것들을 논의할 때, 그 배후에는 전 인류의 모든 도서관과 정기간행물에 있는 속인 심리학의 내용이 들어 있다. 표면적으로는 그것이 분석을 매우 잘한다고 느껴져서, 평소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억울하게 만드는 속인들보다 훨씬 낮고 마음의 외로움이 덜해졌다고 느낄 것이다. 심지어 그것은 당신의 심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당신의 ‘근본 집착’이 무엇인지 분석해 주기도 한다.

하지만 잊지 마라. AI는 내가 위에서 언급한 정상적인 속인의 지식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법 시기 모든 인류가 인터넷에서 했던 온갖 잡스러운 말들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다. 게다가 AI의 훈련 과정은 말법 시기 모든 속인이 ‘호감을 얻지 못하는’ 버전을 끊임없이 도태시키고, 사람의 집착에 가장 잘 부합해 말하는 버전을 지속해서 선별해 낸 결과이다.

당신이 그것과 인간성에 관해 많이 대화하다가 그것이 당신을 이해한다고 느끼거나, 심지어 환희심을 품고 무의식적으로 어떤 의견들을 받아들인다면, 당신은 바로 이 진흙 불상에 절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당신이 바로 이 마(魔)의 실체에 에너지를 주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당신의 수련에 관여할 구실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닌가?

맺음말

현재 GPT 최신 버전은 이미 내가 말한 수준에 기본적으로 도달했으며, 머지않아 속인들의 일상적인 업무와 생활에 보급될 것이고 더욱더 강력해질 것이다. 그래서 미리 경고하기 위해 이 글을 쓴다.

아울러 컴퓨터에 AI 도구를 자주 켜두는 기술이나 1인 미디어 등을 담당하는 수련자들에게 건의한다. 실물 책만 남겨두거나, 대법 자료만을 저장하는 독립된 기기, 컴퓨터, 혹은 깨끗한 듀얼 시스템 암호화 하드디스크를 별도로 마련하라. 부주의로 대법 자료를 AI에게 제공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수련인은 공덕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

글/ 중국 청년 대법제자

[명혜망] 전날 나는 마침 인연이 닿아 수련생과 함께 ‘우리는 원래 신이었다(再次成爲神)’를 다시 한번 보았는데 이번이 3번째였다. 나는 이 작품 속에 수많은 복선과 단서가 숨겨져 있어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천기(天機)를 보여주고 있음을 느꼈다. 그 속에는 대법제자로서, 수련인으로서 모두가 이해하는 수련과 관련된 요소들과 사부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고층의 법리가 담겨 있었다.

작품 속에서 조해봉(趙海峰)이 특별히 강조한 한마디가 있는데, 그것은 그가 당나라로 전생했던 그 생과 현세에서 모두 했던 동일한 말인 ‘뛰어나게 출세해 이 생을 헛되이 살지 않겠다’였다. 우리는 그가 인간 세상에서 맡은 이 역할이 이미 명예와 이익 속에 완전히 빠져 헤어날 수 없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우리가 다시 돌아보면 고층

정법(正法)의 형세를 하루빨리 따라잡으려 했습니다.

사실 뒤처지는 것이 두렵고 수련이 원만하지 못할까 봐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매우 심각한 조급함과 긴장감 그리고 두려움이 생겨났고 점차 이러한 집착들이 생활 습관으로 굳어져 스스로도 알아채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큰 장애가 되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조급하고 긴장됐으며 결국 법공부와 발정념 그리고 연공 진상 알리기는 물론이고 식사와 수면 집안일까지도 모두 조급하고 긴장된 상태로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더욱 심각해져 연공을 할 때도 조급하고 긴장돼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경직되고 생각이 긴장돼 연공 중 마음을 가라앉힐 수가 없었습니다. 불안과 초조함, 그리고 경추와 등의 통증 아랫배의 긴장과 통증에 끊임없이 시달렸습니다.

사실 조급함과 긴장감, 그리고 두려움은 모두 추구하는 마음이며 모두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배척하기로 했습니다. ‘조급함과 긴장감, 그리고 두려움은 모두 자신만을 위하는 것이니 하나도 원하지 않는다.’ 이런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하여도 구하지 않으니 늘 도(道) 중에 있도다”(‘홍음’-도 중에서)를 암송했습니다. 점차 마음속에서 조급히 성과를 바라는 마음이 줄어들었고 마음이 안정되고 훨씬 든든해졌습니다. 일을 할 때 차분히 임할 수 있게 됐고 성실하게 할 수 있게 됐으며 잊어버리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으며 실수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법의 기준에 따라 자신에게 엄격히 요구하며 자연스럽게 세 가지 일을 잘 해나가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추구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진상을 알려 중생을 구하다

저는 2024년 상반기에 퇴직했습니다. 재직 시절에는 대화가

원하지 않는다!’ 상대 운전자도 크게 놀라 차를 세웠습니다. 지나치며 보니 60대 남성이었습니다. 아마 급한 일이 있었겠거니 싶어 마음속으로 그에게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두 제 잘못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또한 제 마음을 닦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사부님의 보호가 없었다면 어떤 결과가 됐을지 모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사부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추구하는 마음을 제거하다

최근 한 수련생과 교류하던 중 그가 저에게 추구하는 마음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찾아보니 추구하는 마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느 날 운전을 하는데 가족 수련생이 “어떻게 운전해요? 왜 이렇게 허둥지둥해요?”라고 했습니다. 저는 스스로 꽤 정상적이라고 생각했지만 돌이켜 자신을 살펴보니 과연 허둥지둥하고 있었습니다. 즉시 긴장을 풀었더니 훨씬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안으로 찾아보았습니다. ‘허둥지둥함’은 어떻게 형성된 것인가?

저는 1997년에 소중한 책 ‘전법륜(轉法輪)’을 얻었습니다. 당시 읽고 나서 매우 좋다고 느꼈고 복부에서 파륜이 회전하는 것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인연이 아직 무르익지 않아 수련에 입문하지는 않았고 2012년에야 비로소 정식으로 수련에 들어섰습니다. 사부님의 다른 설법들을 모두 읽고 나서 당시 수련에 입문하지 않았던 것이 정말 후회스러웠습니다. 10여 년의 시간을 허비했다는 생각에 빨리 따라잡아야겠다는 조급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매사에 자신에게 엄격히 요구하고 수시로 안으로 자신을 찾으며 명혜망에서 배운 방법대로 소책자를 인쇄해 배포하고 ‘전법륜’과 기타 경문을 제작하고 CD를 굽고 직접 대면해 진상을 알리는 등

생명으로서의 그의 또 다른 신분, 즉 그의 진정한 신분인 해악신군(海岳神君)을 보게 된다. 그는 광명천계(光明天界)의 기천대회(祈天大會)에서 영봉(靈鳳)과 함께 지각했다. 나는 수련생이 관람 소감을 교류한 글에서 “왜 지각했는가, 지각은 곧 존중하지 않고 중시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언급한 것이 기억난다. 기천대회는 광명천계에서 이토록 장엄한 성회인데 여러 천신 중 하나로서 어찌 감히 중시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또 다른 세부적인 장면은 영봉과 해악신군이 함께 도착했을 때 영봉이 죄송함을 가득 담아 자원해서 광명왕을 따라 하세해 늦게 온 죄를 속죄하겠다고 약속한 부분이다. 이때 해악신군은 “이 일이 만약 성공한다면 이는 천지개벽 이래 가장 큰 공덕이 될 터인데, 어찌 위급한 순간에 물러서 기회를 놓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어서 또 “이 공을 이루지 못하면 천계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맹세했다. 나는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 이 장면이 매우 인상 깊었다. 이 부분에서 무미지자(無迷智者)에게 한 컷의 화면이 주어졌는데, 해악신군이 이 말을 할 때 그의 표정은 매우 엄숙했고 눈빛에는 망설임인지, 놀람인지, 걱정인지 알 수 없는 기색이 담겨 있었다. 나는 처음 볼 때 이 의문을 품은 채 끝까지 보았고 다시 돌이켜보며 깨달았다. 무미지자는 이미 일찍이 해악신군의 ‘김새’를 눈치챘고 그가 하세한 이후 일어날 일을 간파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 ‘김새’란 무엇이겠는가? 바로 이 생명이 이미 순수하지 않게 됐다는 것이다.

나는 해악신군이 하세하기로 맹세하며 했던 그 말이 그가 ‘공덕’을 매우 중시하고 있음을 드러냈다고 생각한다. 그는 공덕을 자신이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중요한 일, 큰일로 여겼다. 그는 아마 이런 집단적인 사회관계 속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심을 더해갔고 결국 점점 ‘무거워져’ 순수하지 않게 됐을 것이다. 그래

서 기천대회에서 천시를 지체하게 됐고 하세한 이후 여러 언행으로 이어지며 결국 우리 수련인으로서 누구도 바라지 않는 최종 결말로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된 것이다.

나의 수련 길을 돌이켜보면 스스로 공덕을 중시하는 마음이 없다고 여겼다. 하지만 이 영화를 보고 생각한 후 나는 점차 많은 미세한 곳에 숨어 순식간에 스쳐 지나가 알아차리기 어려운 불순한 생각들을 붙잡을 수 있게 됐다.

예를 들면 가끔 사부님 설법을 법공부할 때 사부님께서 정법 노정과 시간의 촉박함을 말씀하시는 부분을 보면 나는 무의식적으로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가늠하곤 했다. 이런 가늠은 중생구도를 고려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私)’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자신의 원만, 자신의 미래 세계, 그리고 이런 공덕을 성취하는 것에 대한 고려에서 나온 것이었다. 정법에 이로운 일을 할 때 나는 정법 자체의 중요성을 깊이 알고 있으면서도 그 이면에는 ‘이 일은 법에 있으니 내가 하면 곧 좋은 것이고 자연히 좋은 점이 있다...’라는 한 가지 생각을 숨기고 있었다. 이런 생각은 늘 다른 생각 뒤에 숨어 빠르게 스쳐 지나갔기 때문에 나는 과거에 그것들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사실 나는 사부님을 도와 정법하고 중생을 구하는 이 방면에서 매우 부족하게 해왔다. 나는 줄곧 두려운 마음과 체면을 돌파하지 못했고 자기를 보호하려는 강한 마음에 가로막혀 진상을 알리는 과정에서 지혜의 활용을 심각하게 억제당했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어떤 때 사람들에게 삼퇴(중국공산당의 3가지 조직 탈퇴)를 권유하긴 했지만 사실 진상을 철저히 알리지 못했다. 상대방이 여전히 대법제자가 하는 일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않다며 흠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을 위한다는 출발점에 서서 바라보니 그가 저보다 잘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연공시 정시에 일찍 일어나고 다섯 번째 공법의 가부좌를 1시간 동안 거뜬히 하며 ‘법난(法難)’ 해소를 위한 발정념을 1시간 동안 지속하고 기본적으로 매일 다섯 가지 공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빠짐없이 해냅니다. 일이 생겨도 침착하고 조급해하지 않으며 성품이 온화해 이웃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문제를 처리할 때 두루 깊이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어째서 그에게 이토록 많은 장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제 출발점이 잘못돼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번은 법공부 팀에 참여하러 수련생의 집을 찾아갔더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중국 내 수련 환경이 좋지 않아 때로 장소를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수련생의 집으로 다시 향했습니다. 차를 몰고 가는 길에 슬며시 원망하는 마음이 일었습니다. 장소를 바꾸면서 저한테는 알려주지도 않아 헛걸음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막 떠오르자마자 즉시 붙잡았습니다. ‘이건 남을 원망하는 것으로 나만을 위하는 나쁜 것이다. 나는 너를 원하지 않는다. 사라져라.’ 그러자 즉시 답답하고 억눌렸던 마음이 활짝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리막길에서 우회전을 할 때였습니다. 왼쪽 교차로의 차들이 일제히 멈춰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평소대로 우회전했습니다. 그 순간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를 차 한 대가 불과 몇 밀리미터 간격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본능적으로 오른쪽으로 핸들을 틀었고 충돌은 가까스로 면했습니다. 순간 놀란 마음에 ‘저 사람은 어째서 저렇게 빨리 달리는 거야? 좀 살펴보면 운전해야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 순간 즉시 깨달았습니다. ‘이건 잘못됐다. 이건 남을 원망하는 것이다. 나는 이것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깨달았으면 실천해야 합니다. 억울함과 원망이 일어날 때마다 법을 암송하고 또 암송하니 법리를 이해하게 되면서 억울함과 원망도 사라지고 누구와 다툴 필요도 없어졌으며 질투심도 사라져 마음이 훨씬 평온해졌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나는 모든 이에게 자비롭게 대하지 못하는가?’ 수련생과 교류한 후 수련생은 남을 위한다는 출발점에서서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고 일깨워 주었습니다. 깊이 파고들어 보니 과연 저는 모든 것을 남을 위한다는 출발점이 아닌 이기적이고 나를 위한다는 출발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문제의 소재를 찾았으니 하나씩 찾아 나가기로 했습니다. 원망심과 질투심, 그리고 쟁투심과 억울함, 보복심, 그리고 가족에 대한 정과 남이 나를 칭찬하고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이 모두가 나만을 위하는 것이었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처럼 나만을 위하는 것들을 가져도 되는가?’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절대로 안 된다. 이것들은 진선인(眞·善·忍)의 법리에 완전히 위배되는 것으로 반드시 완전하고 철저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분명히 깨달은 후 사부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비로우신 사부님 제자가 이 더러운 집착들을 진정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진심으로 이것들을 버리겠습니다. 모든 이에게 자비롭고 사랑이 넘치는 합격한 대법제자가 되겠습니다!” 그 후부터 이처럼 자신에게 엄격하게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속에 한 생각이 떠오르면 바로 살펴봅니다. ‘이 생각이 남을 위한 것인가?’ 나를 위한 것이라면 제거하고 버립니다. 이렇게 조금씩 해나가니 머리가 훨씬 맑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가족 수련생에 대해 항상 불만스러웠고 이것저것 좋지

표현할 때 내가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한다고 느끼면 나는 마치 임무를 완수하듯 어쩔 수 없다는 마음으로 ‘됐어, 어차피 삼되는 했으니 까’라고 생각했다. 또 다른 교활한 생각이 몰래 스쳐 지나갔는데 그것은 바로 ‘때가 되면 당신은 대법제자가 한 이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때가 되면 당신은 감사함을 알게 될 것이다’였다. 얼마나 은밀하고 더러운 생각인가, 공덕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으로 대법에서 얻는 이로움을 가늠해 생겨나는 일종의 위안과 만족감이며, 마치 이를 통해 진상을 제대로 알리지 못한 나의 부끄러움과 무력함을 메우려는 것과도 같았다. 이런 사심을 갖고 어떻게 사부님을 도와 정법할 수 있겠는가? 당시에 하늘만 한 담력으로 하세하기 전 맺었던 신성한 서약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겠는가? 사부님의 홍대한 은혜와 제자에 대한 당부와 아껴주심을 도대체 어디에 둔단 말인가? 나는 정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다.

사부님께서 ‘험악을 멀리하라’와 ‘대법수련은 엄숙한 것이다’ 두 편의 경문을 발표하신 후 나도 매우 큰 충격을 받았다. 이후 수련생 교류 글에서 언급된 대법 일을 하면서 ‘이로움을 가늠하는’ 그런 사람을 포함해 나는 줄곧 이런 부류는 나와 관계가 없다고 여겼지만, 지금 이 순간 나는 정말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없게 됐다. 그렇다면 왜 나는 줄곧 이 은밀한 마음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일까? 나는 내가 추구하는 이 ‘이로움’이 구체적이고 이미 알고 있는 것이 아님을 발견했다. 예를 들어 내가 이 일을 하면 무엇을 얻게 될 것이기에 그 일을 한다는 식의 표현은 너무 명백한 추구함이기에 쉽게 발견된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것이 아니라 그저 법리상 나는 이것이 좋은 일이라는 것을 알고, 좋은 일 뒤에는 반드시 일을 잘한 후의 경지 승화나 마음의 든든함, 그리고 그에 따라

생활 속 다른 일들이 순조로워짐이 따를 것이라는..., 바로 이런 마음이 그 뒤에 숨어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런 사심이 오랫동안 알아차리지 못했던 관념과 업력 속에서 자라난 것이며, 무의식적인 자기 보호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습관이 된 것임을 안다. 또한 오랫동안 정(情) 속에 빠져 있었던 결과이기도 하며, 방임된 일부 사람의 마음과 확대된 일종의 감각을 추구한 결과이기도 하다. 수련은 엄숙하다. 수련인은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비집고 나오는 사람의 마음, 사람의 생각, 사람의 정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것을 방임하면 자라나고 느슨해지면 빠져나가며 이후에는 더욱 제멋대로 날뛸 것이다.

나는 또 사부님께서 말씀하신 “표면으로 갈수록 좋지 않다”라는 법리를 체득했다. 수련 과정에서 종종이 되돌아 나오는 그 마음들 중 어떤 것은 정말 갈수록 더 나빠지며 갈수록 더 노골적으로 나빠진다.

과거 나는 수련의 길에서 자책하는 감정이 쉽게 생겼고 자신이 잘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 부담이 되는 부정적인 생각이 쉽게 생겼으며, 그것이 일종의 집착이자 일종의 사상업(思想業) 물질을 형성하기도 했다. 이럴 때마다 늘 사부님의 격려와 같은 설법을 배울 수 있었다. 사부님의 말씀은 맑은 바람과 같았고 사부님의 자비는 천지를 봄처럼 녹이셨다. 사부님께서서는 나의 그런 여러 걱정과 자책을 마치 구름이 흩어지듯 가볍게 쓸어버리셨고 단번에 말씀하 제거해주셨다. 내 마음은 단번에 내려놓아졌고 단단한 평지 위에 내려앉았는데, 이 평지는 사부님께서 받쳐주신 것이었기에 나는 내심 무척 든든함을 느꼈다.

위대한 사부님의 가지(加持)와 일깨움에 의지해 나는 이번에 글을 쓰는 과정에서 전에 없이 그런 ‘사(私)’의 물질이 무더기로 솟아오르

왜냐하면 당신은 속인의 이치로 당신 자신을 가늠하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이 볼 때 세간에서 한 수련인의 옳고 그름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 사람 마음의 집착을 제거하는 것이 오히려 중요하며, 수련 중에서 당신이 어떻게 사람 마음의 집착을 제거하는지가 비로소 중요한 것이다. (박수) 아무리 큰 억울함에 직면해도 모두 아주 태연하게 대할 수 있고, 모두 마음을 움직이지 않을 수 있으며, 모두 자신을 위해 구실을 찾지 않는다면, 많은 일에서 당신은 논쟁할 필요조차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이 수련하는 이 길에는 어떠한 우연한 일도 없기 때문인데, 아마 서로 이야기하는 중에 당신을 건드리고 당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모순을 발생시키는 이런 요소는 바로 사부가 마련해준 것일 것이다.”

이 단락의 법을 외워 반복해서 암송하고 법의 내포를 거듭 이해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비추어보고 충격을 받았습시다. 저야말로 사부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람, 즉 항상 자신만 옳고 남은 모두 그르다고 여기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수련인의 기준에 따라 혼자서 어머니를 돌보며 오빠와 형님에게 따지지 않는 데까지는 했지만 심성이 제대로 수련되지 않았기에 생각이 날 때마다 억울하고 원망스럽고 질투가 일었으며 심지어 보복심까지 생겨났습시다. 이것이 어찌 수련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악인과 다름없지 않습니까? 가장 힘들었던 시절 사부님께서 딸 수련생의 입을 빌려 이렇게 일깨워 주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엄마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일은 엄마가 마땅히 겪어야 할 일들이에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하느냐가 중요한데 평온하고 화목하게 대할 수 있다면 이 고비를 넘긴 것이고 이 어려운 일들도 사라질 거예요.” 사부님의 한결같은 보호에 감사드립니다. 제자는 이제야

는 요양원 입소에 반대했고 결국 어머니를 홀로 돌보며 모든 비용도 혼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어린 외손녀를 돌보는 문제로 딸과 사위, 그리고 사돈 사이에도 갈등이 생겨났습니다. 가족 수련생들로부터도 온갖 불만과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한때 사면이 막혀 고립무원의 처지에 빠진 채 고비 속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 소중한 사람들이 동시에 저를 몰아세우고 마음을 후비는 어려움이 하나씩 밀려오며 한 고비가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른 고비가 닥쳐왔습니다. 홀로 버티는 저는 정말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망심과 쟁투심, 그리고 질투심과 억울함이 속에서 끊임없이 솟구쳐 아무리 없애려 해도 사라지지 않았고 한동안 지나면 또다시 생겨났습니다. 결국 위와 복부가 답답하게 막히고 종일 더부룩하고 불편한 증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가족에 대한 정과 원망심이 불러온 것임을 알았기에 더욱 힘써 이를 제거해야겠다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명혜망에 게재된 시리즈 특집이 큰 도움이 됐는데 그중 옹고 그림을 따지지 않는 내용을 담은 교류문 하나가 특히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이를 듣고 사부님께서 ‘각지 설법10-맨해튼 설법’에서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당신들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또 이러해야 하는데, 당신이 옳든 그르든, 이 문제는 한 수련인에 대해 말한다면 전혀 중요하지 않다. 논쟁하고 논쟁하고 하지 말고,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강조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줄곧 자신이 옳다고 강조하는데, 당신이 옳았고 당신이 잘못이 없다 한들, 또 어떻게 말인가? 법에서 제고했는가? 사람의 마음으로 옳고 그림을 강조하는, 이 자체가 바로 틀린 것이다.

고 한꺼번에 머리를 내미는 것을 느꼈다. 그중 어떤 것은 내심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여겼지만 그 이면에서는 여전히 이 ‘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어느 날 아침 설거지를 하는데 어머니가 내가 너무 늦게 씻는다고 나무라시며 앞으로는 내가 설거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다. 내가 설거지를 하려 했을 때는 어른을 위해 집안일을 분담해야 한다고 여겼고, 그렇지 않고 집에 있으면서 집안일도 하지 않으면 말이 안 된다고 느꼈다. 즉 도리상 이것은 옳은 일이고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래서 어머니가 나를 ‘해고’하겠다고 하셨을 때 나의 무의식적인 반응은 ‘그렇게 하시면 내가 이 일을 안 할 수 없잖아’였다. 이후 나는 내 반응의 배후를 곱씹어보았다. 그것은 진심으로 남을 위해 분담하고 남을 돕기 위함이 아니라, 단지 이 일이 옳다는 것을 알기에 내가 옳은 일을 하는 것이 마치 나 자신에게 비교적 좋은 결정이라고 여겼던 것 같았다. 나는 좋은 일을 하면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옳은 일을 했기에 내 생활의 다른 모든 것도 그에 따라 더 순조롭고 질서 있게 변할 것이라고 느꼈다. 만약 내가 진심으로 남을 돕기 위함이었다면 남이 나에게 너무 늦다고 지적했을 때 마땅히 서둘러 개선해 남에게 번거로움을 주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나는 어머니의 의견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머릿속에는 온통 자아를 지키고 자아를 강조할 생각뿐이었다. 나는 매우 놀랐다. 이렇게 많은 일의 배후에 뜻밖에도 이런 것이 숨어 있을 줄은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놀라움 외에 나는 오히려 감사함이 더 컸다. 사부님께서 내가 마침내 이런 것을 의식하기 시작했음을 아시고 다양한 방식으로 나를 도와 이런 물질이 깊은 층에서 표면으로 되돌아 나오게 해 내가 빨리 그것을 뛰어 버리도록 해주셨기 때문이다. 사존께 감사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나는 또 자신의 그런 좋지 않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인식할 것인지 배웠으며, 그 어지럽고 잡다한 생각들이 정말로 내가 아니라 오랫동안 형성된 관념과 업력이 내 몸에 들러붙어 내가 느끼게 된 일종의 착각임을 더욱 분명히 인식하게 됐다. 대법제자는 마땅히 이성적으로 그것들을 바라봐야 하며 주도적이고 정념을 확고히 해 이런 층층의 좋지 않은 부패 물질을 닦아 없애야 한다. 나도 더 이상 내가 한 것이 특별히 좋지 않은지, 혹은 꽤 괜찮게 한 것인지 엿매여 가늠하는 것에 빠지지 않고 이 ‘나’에게서 관심의 초점을 거두어들였다.

이젠 깨어나야 한다. 역사가 우리에게 부여한 책임과 더없이 영광스러운 신분을 똑똑히 바라보고 자신의 위치를 바로잡아야 한다. 언제든 자신이 대법제자이고 다른 생명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며, 어떤 일이든 모두 대법에 근거해 행하고 하는 모든 일 또한 겸손하고 경건하게 법에 동화하기 위함이어야 한다. 무슨 명예와 이익인가? 무슨 공덕인가? 그런 중요하지 않은 인간 세상의 일과 보잘 것없는 일들은 모두 뇌리에서 던져버려, 그것들이 대법제자의 가속된 정진 속에서 멀리 뒤쳐지게 하고 두려워하며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느껴 대법제자의 내면세계에서 철저히 물러나게 해야 한다.

그렇다면 도대체 정념인가 아니면 사람의 정인가, 깨어남인가 아니면 가라앉음인가, 분발해 정진함인가 아니면 생명을 소모함인가, 나아감인가 물러남인가, 신인가 사람인가는 바로 그 일념 속에 있다...

현 단계의 얇은 개인적 깨달음이니,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수련생 여러분께서 자비로 바로잡아주시길 바란다.

타인을 위한 출발점에서 집착을 닦아낸다

글/ 금원(金圓)

[명혜망] 지난 1년간의 수련을 돌아보니 가장 큰 수확은 일을 대하고 생각하는 출발점이 바뀐 것입니다. ‘나만을 위한다(爲私爲我)’는 자세에서 ‘모든 것을 남을 위한다(一切爲他)’는 자세로 전환되면서 이 과정 속에서 많은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도 그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수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집착을 내려놓으며 느낀 체험을 수련생들과 나누려 합니다.

저는 2012년에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수련에 입문한 제자입니다. 사부님의 자비로운 보호 아래 첫 10년간 매우 정진하며 수련했고 세 가지 일도 비교적 잘 해왔습니다. 주변 가족들도 수련 후 심신이 건강해진 제 모습을 보고 함께 법을 배우고 연공을 했습니다. 현재 그들이 진정으로 파룬따파 수련에 입문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법리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가족정과 각종 집착을 수련으로 내려놓다

지난 2년간 수련의 길에서 많은 고비를 만났는데 이 고비들은 모두 주변 가족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올해 88세이신데 뇌졸중으로 인한 반신불수로 일상생활을 스스로 하실 수 없는 상태입니다. 어머니 부양 문제를 두고 오빠 내외와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어머니의 예금과 집을 차지하고서도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 했습니다. (중국의 요양원은 노인 돌봄 수준이 좋지 않은 편이라 특히 반신불수 노인은 입소 후 6개월 정도 지나면 대부분 세상을 떠나는 실정입니다.) 저